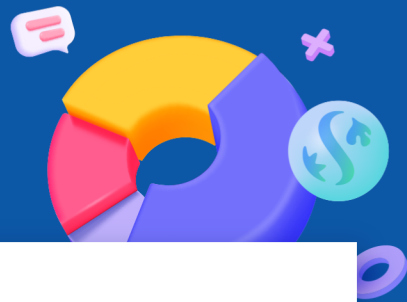


신한생각



Top down

중국 주식전략

중국, 이번 사이클 대장은 소비재 (탐픽 4선)
 귀주모태주 (600519.SH) 업황을 삼켜버린 수급의 힘
 메이디그룹 (000333.SZ) 정책+실적+밸류 삼박자 착착
 프로야 (603605.SH) 중국 화장품 시장에선 적수가 없다
 메이투안 (3690.HK) 중국 빅테크 중 가장 좋은 선택지

채권전략

한국판 점도표에 주목

Bottom up

산업 분석

신에너지(수소) (비중확대) 금리 인하, 과거, 그리고 현재
 철강금속 (비중확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한 소고
 화장품/섬유의복 (비중확대) Corporate Day 1일차 후기

기업 분석

팜트론 (087010/Not Rated) 릴리다. 실패는 없다.

해외기업 분석

야스카와 전기 (6506.JP) 부진할 수밖에 없는 주가

해외 주식 및 ETF 추천 종목

[주식] 브로드컴, TSMC, 오라클, 온솔딩스, 스타벅스, 일라이 릴리, 레나, 베이팡화창
 [ETF] 전력망, 중국 소비재

국내 주식 추천 종목

[MP] 비철, 증권, 헬스케어 ↑ VS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소매 ↓
 [중소형주] 뷰노, 한국콜마, 티에스이, JYP Ent., 드림텍, 모나용평, 삼목에스폼, 비나텍, 토비스, 태광

KOSPI

2,610.38 (+1.58%)

KOSDAQ

781.01 (+1.56%)

KOSPI200선물

349.25 (+1.50%)

원/달러 환율

1,346.60 (-2.70원)

국고 3년 금리

2.960 (+1.36bp)



신한 리서치
투자정보

www.shinhansec.com

중국, 이번 사이클 대장은 소비재 (탐픽 4선)



China Equity Analyst

최원석

☎ (02) 3772-2918

✉ ws.choi@shinhan.com

China Equity Strategist

신승웅, CFA

☎ (02) 3772-3175

✉ aidenshin@shinhan.com

부양책이 촉발한 포모(FOMO) 랠리. 중국 전술적 비중확대 유지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 주식시장이 개장한다. 부양책 패키지 발표 이후 홍콩 H와 CSI300은 각각 30.5%, 25.5% 상승하며 포모(FOMO) 랠리가 이어졌다. 연휴 직전 거래일인 9월 30일 본토 A주 거래대금은 2.59조위안(약 490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례 없는 거래량 폭증에 상해증권거래소는 시스템 이상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로컬 증권사 HTS는 거래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투자자들에게 거둬 실망감을 안겼던 과거 반등 사이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산시장의 격한 반응은 결국 최고지도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에 기인한다. 3대 금융수장(인민은행장, 증권감독거래위원장, 금융감독총국장)이 일제히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불과 사흘 만에 정치국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전개했다. 관례에 벗어난 정책 대응은 결국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경기부양에 있음을 나타낸다. 1) 통화완화, 2) 재정확대, 3) 부동산 부양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에 집중해 '5% 성장'을 사수할 계획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직접적인 자산시장 부양에 나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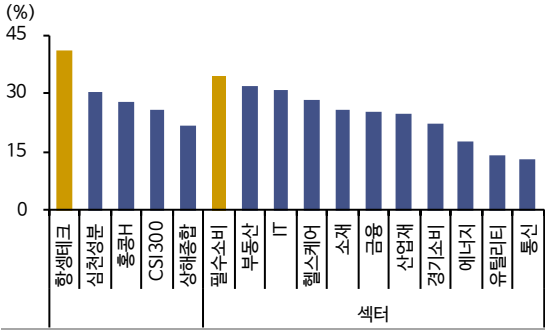
금융당국은 장기투자자금 시장 유입 촉진, 상장사 자사주 매입 지원, 증시안정기금 도입 준비 등 광범위한 주식시장 부양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유동성 함정이다. 정책 실기가 야기한 투자자 신뢰 결여는 국채와 은행예금으로의 극단적 자금 쏠림으로 귀결됐다. 자산가치 급락은 소비 위축을 동반했다. 정부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양을 통해 유동성 정상화(relocation)에 나선 배경이다. 중국 자산시장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상해종합지수 추이 및 주요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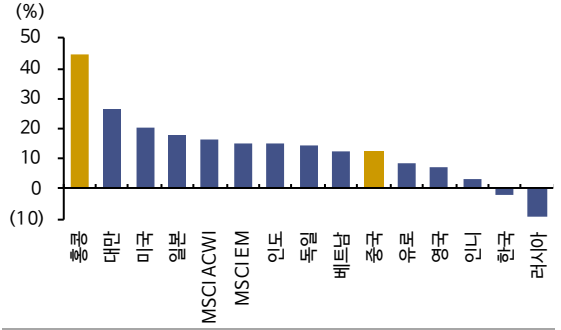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9/23 이후 중화권 주식시장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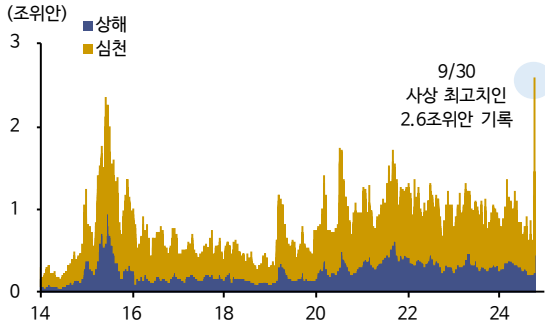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세계 주식시장 연초 이후 수익률: 홍콩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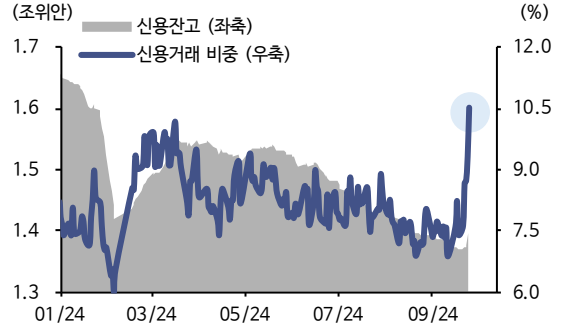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주 거래대금 사상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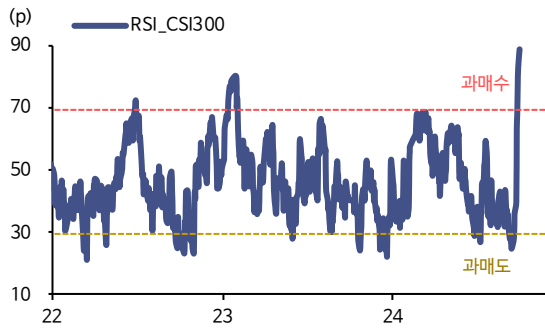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주식시장 레버리징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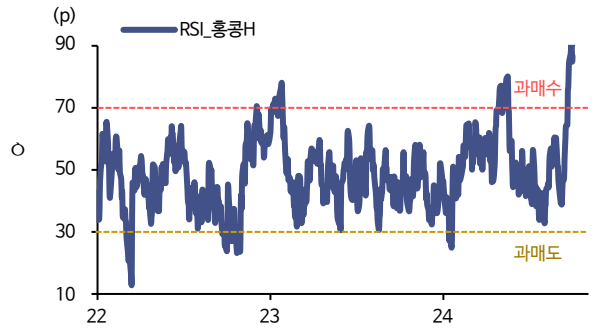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CSI300 단기 과매수 영역 진입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홍콩H 단기 과매수 영역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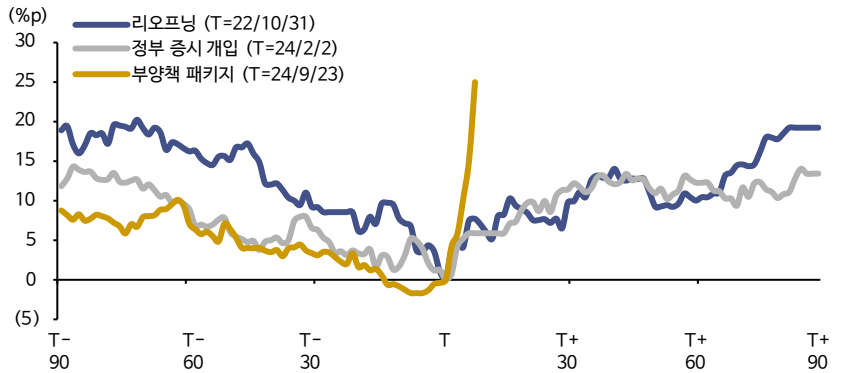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에브리딩 랠리 이후의 주식시장. 업종과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점

과거 반등 패턴과 궤를 달리하는 금번 FOMO 랠리. 국경절 연휴기간 홍콩시장 상승세 지속. 기술적 부담에도 본토시장 강세 기대

우리는 지난 자료를 통해 중국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경계하며 전술적 비중확대를 권고했다. 가파른 V자 반등 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술적 조정은 우려스럽지만, 지난 몇 차례의 반등 패턴과 궤를 달리하는 경로임은 분명하다. 중국 주식자산의 Risk-on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연휴기간 홍콩 주식시장은 상승세(홍콩H +10.9%)를 이어가 본토시장의 매수 대기물량이 많이 쌓여있다.

CSI300 반등 패턴 비교: 과거와 궤를 달리하는 금번 랠리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CSI300 12MF P/E 13.5배로 지난 5년 평균 하회. 리스크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 상회. 위험대비보상의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해도 본토시장의 상승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CSI300의 12MF P/E는 13.5배로 지난 5년 평균(13.8배)을 여전히 하회한다. 과거 경험에도 대세 반등 구간에서 +1표준편차를 상회하는 멀티플 상승은 이례적이지 않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를 적용해 도출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5.3%로 지난 5년 평균(+4.6%)을 상회한다. 위험대비보상의 관점에서 중국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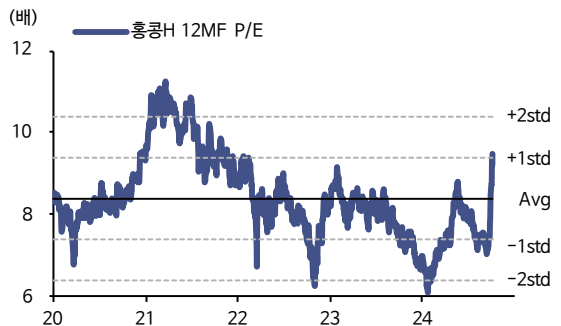
본토지수에 선행하는 홍콩H 이익추정치는 지난 2분기 말을 저점으로 상향 조정이 이어진다. 부양책 효과까지 고려하면 A주 EPS도 바닥에서 반등을 타진할 전망이다. 물론 기대수익률 관점에서 지수 레벨에 갖는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에브리딩 랠리였다면 이제는 업종과 종목 선별을 해야 할 시점이다.

CSI300 12MF P/E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홍콩H 12MF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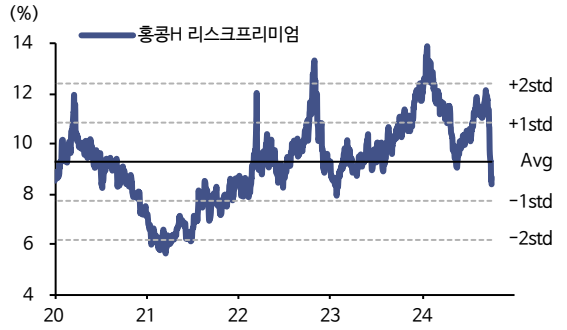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CSI300 리스크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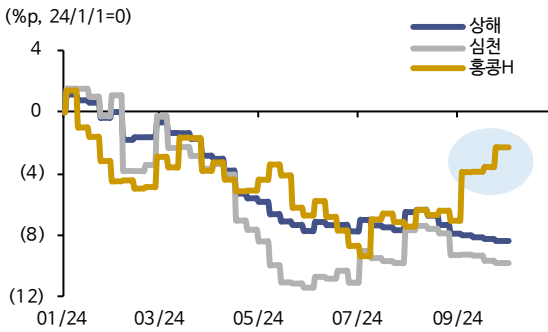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무위험수익률은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적용

홍콩H 리스크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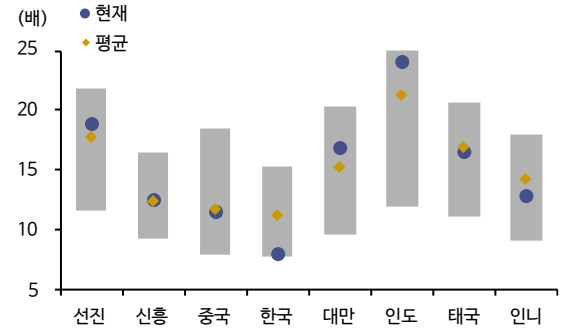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무위험수익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적용

중화권 주요지수 EPS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국가별 12MF P/E 밴드(5년)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주: MSCI 기준

부양책 패키지 핵심 내용 정리

분야	세부 내용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초장기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활용한 정부투자 강화
통화정책	고강도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재정정책과 조화해 역주기조절(경기부양) 강화
부동산	부동산 시장 하락 방지 및 회복 유도, 신축 공급 조절, '화이트리스트' 대상 대출 확대
자본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 강화, 중장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개인투자자 보호
기업 지원	민간경제 촉진법 도입, 비공유제 경제 발전 환경 조성, 기업관련 법 집행 및 감독 규범화
소비 촉진	중저소득 계층 소득 확대, 소비시장의 구조적 성장 추진, 양로 및 육아 산업 발전 지원
외자 유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제조업 관련 해외자본 진입 규제 완화, 기업경영환경 최적화
민생 보장	청년, 농민공 등 주요 취약계층 고용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농업 생산 철저히 관리

자료: 중앙정치국회의 회의록, 신한투자증권

부양책의 최대 수혜주는 소비재. 밸류와 수급 측면에서도 최선호

부양책 패키지의 지향점은 소비의 성장기여도 확대. 부동산 부양은 소비심리 회복으로 귀결. 지방정부 소비진작 조치 강화

음식료, 의류, 여행/레저 섹터 밸류에이션 백분위 하위 10%. 연내 기관 수급 유입 집중될 전망

소비재 탐픽 4선:
 귀주모태주(600519.SH)
 메이디그룹(000333.SZ)
 프로야(603605.SH)
 메이투안(3690.HK)

지도부가 전개하는 부양책 패키지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소비의 성장기여도 확대다. 밀어내기 수출을 통한 성장률 방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이다.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소비심리를 결정하는 주요 동인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국회의에서 최고 지도부는 ‘부동산의 하락을 방지하고 회복을 유도(止跌回穩)’하겠다고 공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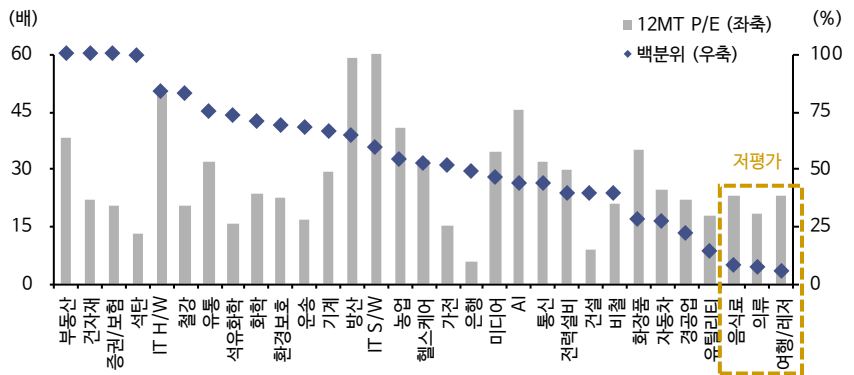
자산가격이 반등하면 소비심리도 회복되기 마련이다. 최근 상하이 등 주요 지방 정부도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인 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거론된다. 우리가 중국 소비주에 주목하는 이유다.

음식료, 의류, 여행/레저 등 주요 소비재 섹터 밸류에이션은 지난 5년 기준 백분위 하위 10%에 위치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저평가 되어있다는 의미다. 기관 수급도 비어있다. 2분기 말 기준 여행/레저, 화장품, 의류, 유통섹터의 로컬 공모펀드 편입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음식료(-3.6%p)는 전분 기대비 가장 많이 비중을 줄인 섹터로 연내 기관 수급 유입이 집중될 전망이다.

소비재 탐픽 기업으로 귀주모태주(600519.SH), 메이디그룹(000333.SZ), 프로야 화장품(603605.SH), 메이투안(3690.HK)을 제시한다. 귀주모태주는 백주 업황 부진에도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의 힘이 압도적이다. 메이디그룹은 중국 대표 가전업체로서 부동산 부양책 + 소비 진작책은 최고의 주가 반등 트리거다. 하반기 높은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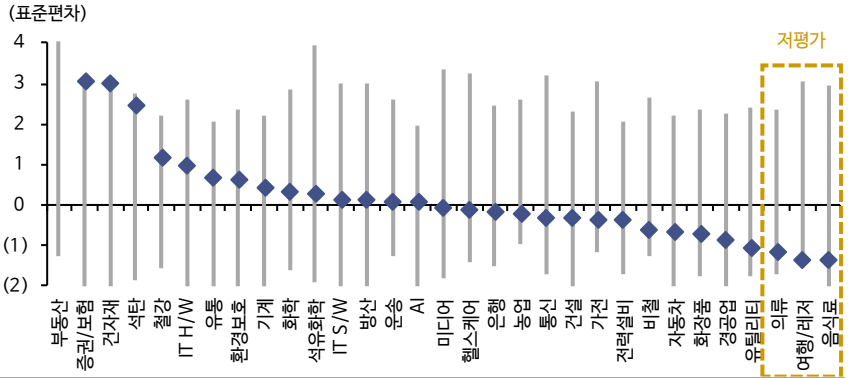
프로야는 화장품 업황 불황에도 나홀로 매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적어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선 더 이상 적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국경절 이후 11월 광군제, 연말 쇼핑 시즌까지 앞뒀 성수기가 임박했다. 메이투안은 중국 빅테크 중 소비 회복의 수혜를 가장 직관적으로 누리는 플랫폼이다. B.A.T를 압도하는 실적이 이를 방증한다

A주 섹터별 12MT P/E 및 백분위(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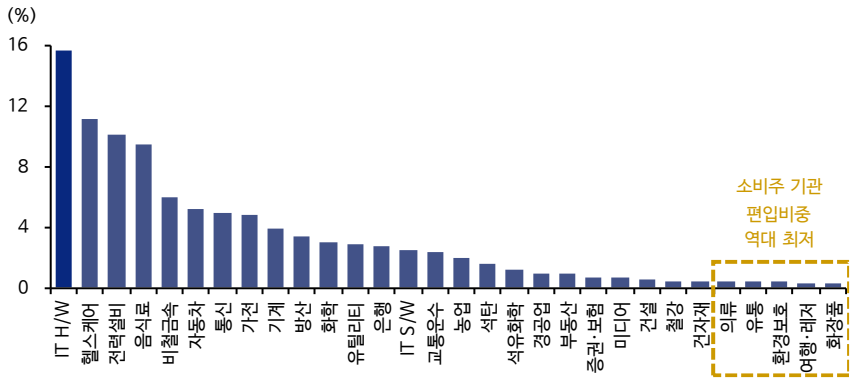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 주: S/W level1 섹터분류 기준

A주 섹터별 밸류에이션 밴드(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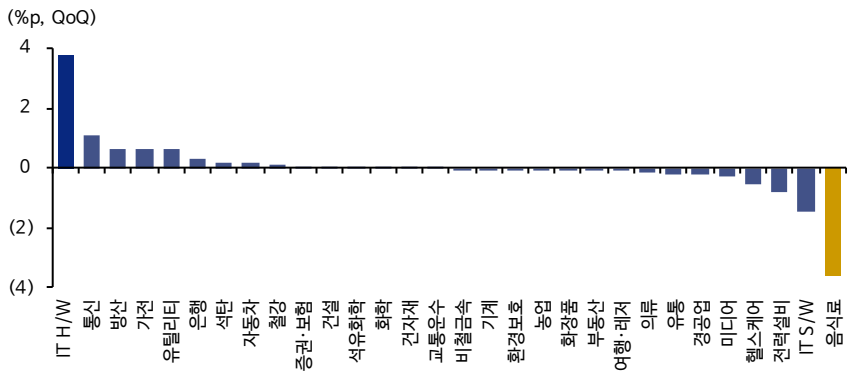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 주: S/W level1 섹터분류 기준

중국 로컬 공모펀드 섹터별 편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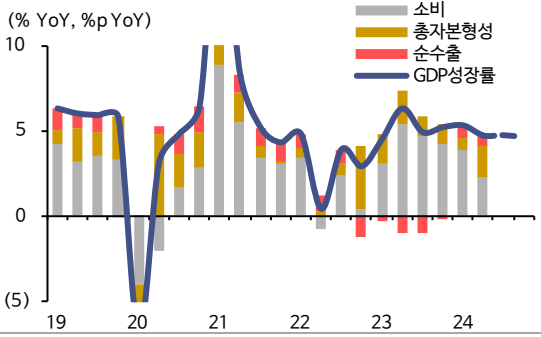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 주: 2분기 말 기준

중국 로컬 공모펀드 2분기 섹터별 편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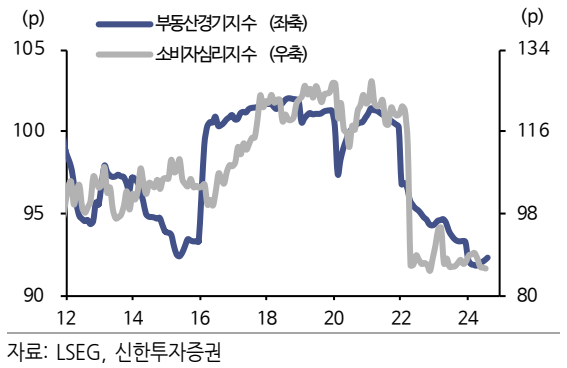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 주: 2분기 말 기준

GDP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부동산 경기와 동행하는 소비심리



귀주모태주 (600519.SH)

업황을 삼켜버린 수급의 힘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WIND)	1965 위안
✓ 상승여력	12.4%	✓ 현재주가 (9월 30일)	1748 위안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중국 소비 대장주. 업황을 삼켜버린 수급의 힘

중국 대표 프리미엄 백주 기업.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이자 소비재 업종 대장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포지션 확대 시 수급 유입 기대. 백주 업황 부진 속에도 압도적 브랜드 가치로 경쟁사보다 우수한 실적 방어력 확인,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선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4Q부터 기대. 그보다 눈이 가는 밸류업 프로그램

업황 부진에도 귀주모태주 실적은 2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 상회. 상반기 매출 증가율 +17.6% YoY로 올해 연간 회사 목표치(15%) 상회. 프리미엄 제품 수요 예상보다 견고. 핵심 제품인 '비천(飞天) 53도' 도매 가격도 국경절 기점으로 반등(10/6 기준 도매가 2430위안/병, 2주전대비 +5.2%). 다만 3Q 실적은 불확실성 존재. 8월 백주 출하량 -10.2% YoY, 7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역성장. 정부 소비 촉진책 실효성 거둔다면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4Q부터 기대 가능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 강화. 1) 8월 '2024-2026년 배당 정책' 발표. 반기+연말 연 2회 배당, 배당성향 75% 이상 목표 제시. 2) 9월에는 상장 23년만에 첫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향후 1년간 30억~60억위안 규모 매입 예정. 매수한 자사주는 모두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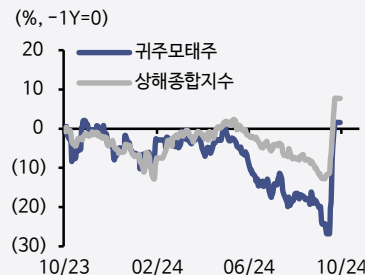
업황을 삼킨 수급의 힘. 소비재 강세장 이어진다면 주도주 지위 지속

동사 주가는 정부 부양책 발표된 9월 24일부터 약 40% 급등. 업황 회복 기대 낮고, 수급 빈집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 소비 회복 기대 심리 급격히 개선된 영향. 단기 업황과 별개로 소비재 강세장 이어진다면 주도주 지위 이어질 듯. 12MF P/E 23배, 최근 5년 평균 31배 하회해 아직 밸류 부담은 높지 않은 구간. 우호적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하방 지지

상해종합지수 (pt)	3,336.5
시가총액 (조원)	410.6
발행주식수 (백만주)	1,256
유동주식비율 (%)	43.7
52주 최고가 (위안)	1,791.8
52주 최저가 (위안)	1,245.8

주요주주 (%)	
중국귀주모태주유한공사	54.1
홍콩중앙결산	6.4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25.0 20.3 0.3 3.4
상대	4.4 7.2 (6.9) (8.8)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억위안)	증가율 (%)	영업이익 (억위안)	영업이익률 (%)	순이익 (억위안)	EPS (위안)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배당수익률 (%)
2022	1,275.5	16.5	878.8	68.9	627.2	49.93	19.6	34.6	31.8	10.5	2.7
2023	1,505.6	18.0	1,037.1	68.9	747.3	59.49	19.1	29.0	34.7	9.9	1.2
2024F	1,744.3	15.9	1,207.0	69.2	869.4	69.21	16.3	25.3	34.7	8.7	2.7
2025F	1,981.5	13.6	1,378.3	69.6	993.2	79.06	14.2	22.1	34.4	7.4	3.1
2026F	2,234.0	12.7	1,561.2	69.9	1,125.4	89.59	13.3	19.5	34.0	6.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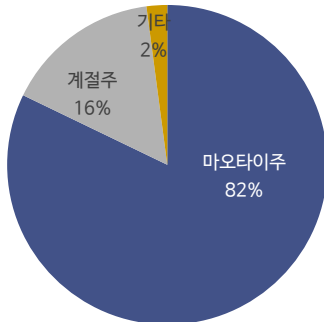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귀주모태주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억위안, %)	1H21	2H21	1H22	2H22	1H23	2H23	1H24	2H24F	2023	2024F	2025F
매출액	507.2	587.4	594.4	681.1	709.9	795.7	834.5	909.8	1,506	1,744	1,982
마오타이주	429.5	505.2	499.7	578.7	592.8	673.1	685.7				
계절주	60.6	65.4	76.0	83.4	100.7	105.6	131.5				
매출액 YoY	11.1	12.2	17.2	15.9	19.4	16.8	17.6	14.3	18.0	15.9	13.6
마오타이주	9.4	10.9	16.3	14.6	18.6	16.3	15.7				
계절주	30.3	22.4	25.4	27.6	32.6	26.6	30.5				
매출총이익률	91.4	91.5	92.1	91.9	91.8	92.0	91.8	92.2	92.0	92.1	92.2
영업이익률	69.1	67.5	70.0	67.9	70.3	67.6	69.0	69.4	68.9	69.2	69.6
순이익	246.5	278.1	297.9	329.2	359.8	387.5	417.0	452.5	747.3	869.4	993.2
YoY	9.1	15.4	20.8	18.4	20.8	17.7	15.9	16.8	19.2	16.3	14.2
EPS(위안)	19.63	22.13	23.72	26.21	28.64	30.85	33.19	36.02	54.49	69.21	79.06
YoY	9.1	15.4	20.8	18.4	20.7	17.7	15.9	16.8	9.2	27.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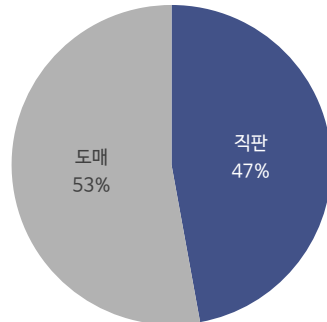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귀주모태주 제품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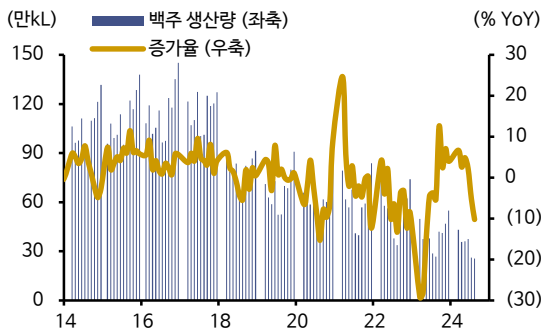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귀주모태주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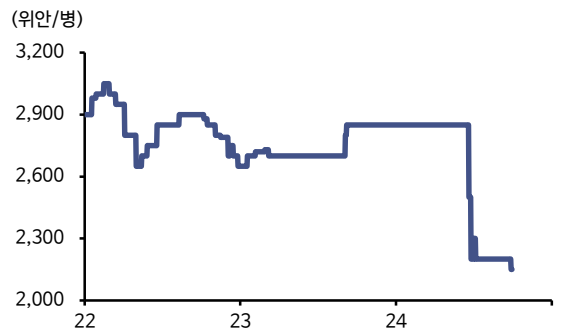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백주 출하량. 업황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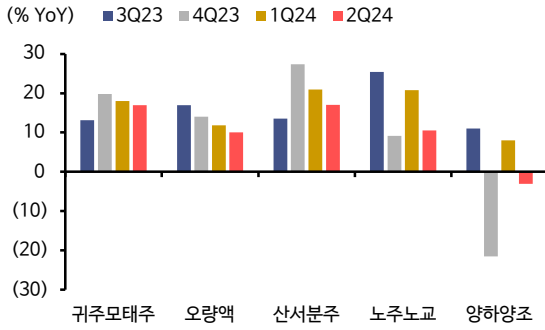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마오타이 '비천 시리즈' 도매가 참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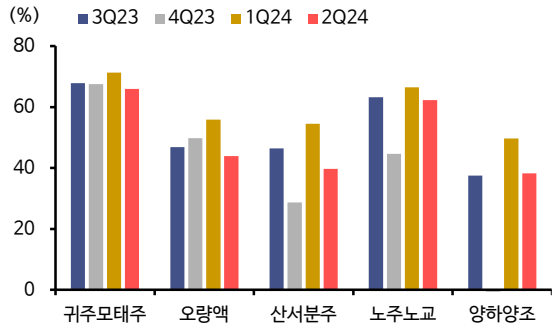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백주 상위 5사 매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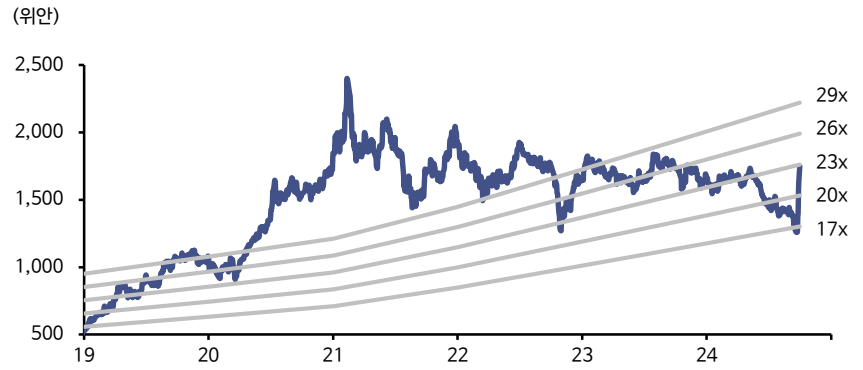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백주 상위 5사 영업이익률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귀주모태주 12개월 선행 PER 밴드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디그룹 (000333.SZ)

정책+실적+밸류 삼박자 착착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WIND) 81.3 위안
 ✓ 상승여력 6.9% ✓ 현재주가 (9월 30일) 76.1 위안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부동산 부양책 + 소비 촉진책' 최고의 주가 반등 트리거

중국 대표 가전 기업. 정부 부동산 부양책과 소비 촉진책(가전하향, 이구환신)은 가전 업종에 더할 나위 없는 주가 반등 트리거. 가전 수출도 호조 이어가며 실적 성장 뒷받침. 특히 가전은 중국 대표 가치주 섹터로서 최근 증시 폭등에 따른 밸류 부담 소화국면에서 수급 로테이션까지 기대 가능

내수 회복 기대감에 수출 호황 동반. 해외 사업 확장으로 추가 성장

과거부터 중국 가전 시장은 부동산 사이클과 높은 상관관계 지속. 금번 정부 부양책으로 부동산 업황 회복 조짐. 국경절 연휴 기간 주택 판매량 폭증 기사 연쇄 보도 중. 연휴 이후 거래 데이터 반등 기대감 고조. 침체 기간 길었던 만큼 회복 사이클 진입 시 가전 업종 수혜 강도도 더욱 클 것

정부가 8월부터 시행했던 '가전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특별국채 추가 발행까지 고려 중. 여기에 8월 가전 수출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해 1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가전 업체들에 우호적인 이벤트 다수. 메이디는 중국 1위 가전 업체이자 수출 비중도 42%에 달해 단연 최대 수혜주. 9월에는 홍콩 증시 2차 상장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 발판까지 마련(캐파 증설, M&A, 채널 확장). 수출 제품은 내수용보다 마진을 높여(내수 GPM 26.2%, 수출 28.4%)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

더욱 기대되는 하반기 실적. 여전히 부담 없는 밸류. 본토 최고 가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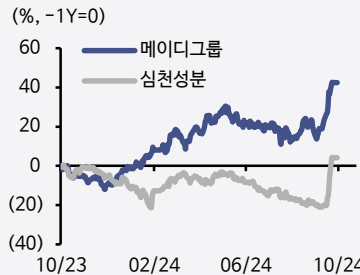
부동산 회복과 정부 소비 촉진책, 수출 호조로 하반기에도 높은 실적 가시성 확보. 더욱이 최근 주가 급등 반영해도 동사 12MF P/E 14배(업종 평균 17배), 25F 배당수익률은 4.3%. 중장기 투자 손색 없는 본토 최고 가치주

상해종합지수 (pt)	10,529.8
시가총액 (조원)	109.9
발행주식수 (백만주)	6,996
유동주식비율 (%)	61.6
52주 최고가 (위안)	76.9
52주 최저가 (위안)	46.7

주요주주 (%)	
메이디홀딩스 유한공사.	31.1
홍콩중앙결산	18.4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20.7	18.8	43.1	45.3
상대	(8.8)	(2.2)	39.0	34.8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억위안)	증가율 (%)	영업이익 (억위안)	영업이익률 (%)	순이익 (억위안)	EPS (위안)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배당수익률 (%)
2022	3,457	0.7	348	10.1	296	4.33	4.6	12.3	20.7	2.7	3.3
2023	3,737	8.1	403	10.8	337	4.92	13.6	11.4	20.7	2.5	2.2
2024F	4,059	8.6	448	11.0	378	4.95	0.6	15.4	20.6	3.2	3.9
2025F	4,374	7.8	493	11.3	417	5.46	10.3	13.9	20.1	2.8	4.3
2026F	4,692	7.3	540	11.5	457	5.98	9.5	12.7	19.6	2.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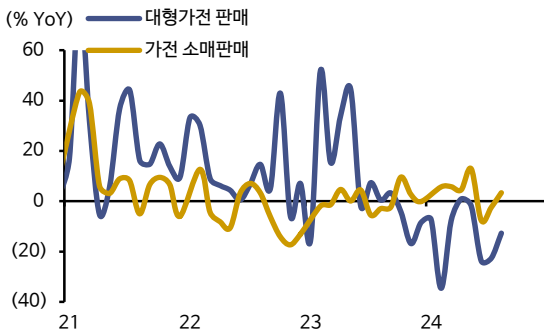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디그룹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억위안, %)	1H21	2H21	1H22	2H22	1H23	2H23	1H24	2H24F	2023	2024F	2025F
매출액	1748	1685	1837	1620	1978	1759	2181	1878	3737	4059	4374
에어컨	764	655	832	674	920	691	1015				
가전	650	669	663	590	681	666	751				
산업용 로봇	126	147	133	167	162	168	157				
매출액 YoY	25.1	15.4	5.0	(3.8)	7.7	8.6	10.3	6.7	8.1	8.6	7.8
에어컨	19.3	14.5	8.9	2.9	10.5	2.5	10.3				
가전	22.5	9.9	2.1	(11.9)	2.7	12.9	10.3				
산업용 로봇	32.2	21.8	5.3	13.5	22.5	0.6	(3.1)				
수출 비중	42.3	37.8	42.4	40.0	40.7	40.0	41.8				
매출총이익률	23.7	22.2	23.5	25.9	25.5	28.3	27.4	26.3	26.5	26.9	27.0
에어컨	20.9	21.3	21.1	25.0	23.4	28.5	26.4				
가전	29.6	25.9	29.2	31.3	32.0	34.0	33.4				
산업용 로봇	22.7	20.9	21.2	20.7	23.3	23.9	22.9				
내수	24.0	23.0	23.6	24.7	24.9	26.0	26.2				
수출	22.2	21.8	22.5	23.6	25.8	27.2	28.4				
영업이익	175.5	157.3	187.2	160.4	220.8	182.3	253.1	194.6	403.2	447.7	493.3
영업이익률	10.0	9.3	10.2	9.9	11.2	10.4	11.6	10.4	10.8	11.0	11.3
지배주주 순이익	150.1	135.6	160.0	135.6	182.3	154.9	208.0	170.4	337.2	378.5	417.2
YoY	7.8	2.0	6.6	(0.0)	14.0	14.2	14.1	10.0	14.1	12.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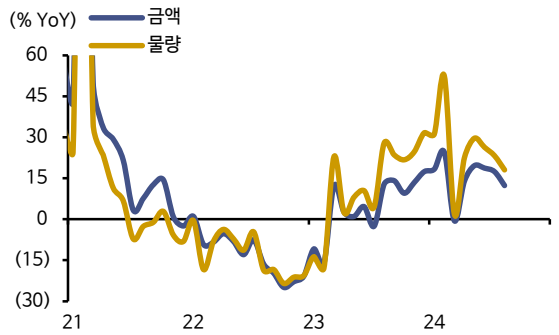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가전 판매: 바닥 찍고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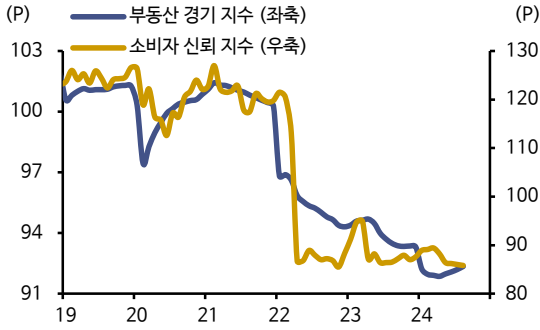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가전 수출: 추세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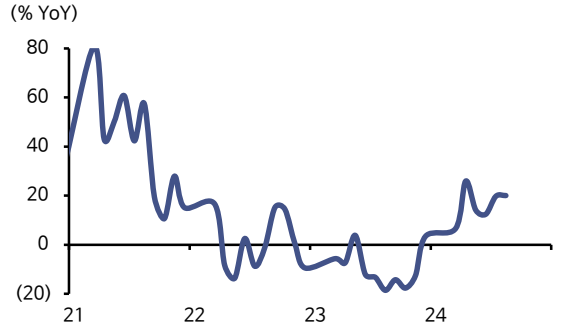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부동산 경기에 후행하는 소비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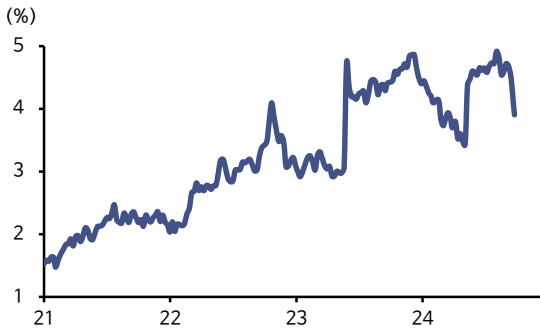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산업용 로봇 출하량: 회복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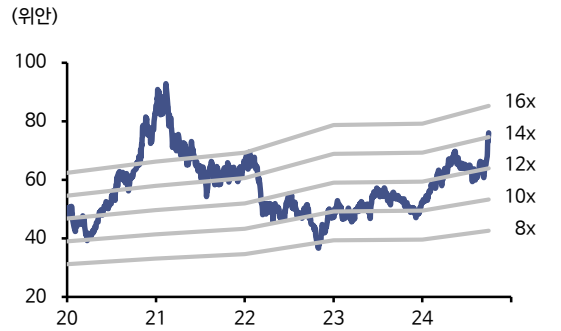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디그룹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디그룹 12개월 선행 PER 밴드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603605.SH)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적수가 없다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WIND)	126.7 위안
✓ 상승여력	15.2%	✓ 현재주가 (9월 30일)	110.1 위안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중국 소비 심리 회복된다면 프로야는 최고의 선택지

정부 부양책 출시 이후 중국 증시 상승률 최상위 업종은 화장품. 소비심리, 주가 워낙 높려 있던 탓. 프로야는 중국 화장품 대장주. 업계 트렌드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화장품 국산화 선도. 어려운 업황 속에도 계속되는 실적 서프라이즈로 1위 브랜드 존재감 입증. 소비심리 점진적 회복 기대되는 가운데 11월 광군제, 연말 쇼핑 시즌까지 앞뒤 성수기 도래

어려운 업황 속 나홀로 빛나는 실적. 외형 성장 + 수익성 개선 동반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불황. 내수 화장품 판매 3개월 연속 역성장. 1~8월 누적 매출 전년 대비 마이너스(-0.5%) 전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사는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38%, 지배주주 순이익 +40% 고성장 실현하며 역대 최고 반기 실적 달성. 1) 중국 MZ세대 본토 브랜드 선호 심리 여전, 2) 이들 거래가 가장 활발한 틱톡, 샤오홍수 등 숏폼 플랫폼에 선제적 진출, 3) 온라인 초기부터 자체 인플루언서팀 육성(투자)한 덕에 현재 경쟁사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 재구매율 상승 효과 톱톡 누리는 중

브랜드 라인업 확대로 외연 확장 노력도 지속. 메인 스킨케어 브랜드 프로야 주축으로 가성비 안티에이징 HAPSODE, 색조 메이크업 TIMAGE, 헤어 케어 Off&Relax까지 2023년부터 세브랜드 모두 흑자 전환 성공. 1H24에도 매출 각각 22%/41%/42% 고성장하며 실적 기여 본격화

주가 급등 반영해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 소비재 업종 내 최신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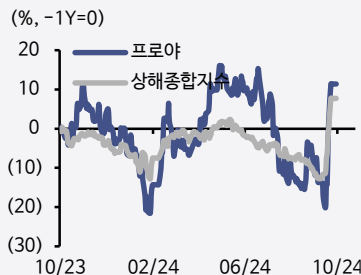
부양책 이후 주가 급등으로 12MF P/E 24배까지 상승. 그러나 최근 5년 평균 30배보다 여전히 낮고, 하반기에도 최대 실적 기대. 시장 점유율 상승과 믹스 개선 동반돼 수익성도 우상향중. 중국 소비재 업종 내 탑픽

상해종합지수 (pt)	3,336.5
시가총액 (조원)	8.2
발행주식수 (백만주)	397
유동주식비율 (%)	50.0
52주 최고가 (위안)	116.6
52주 최저가 (위안)	74.4

주요주주 (%)	
후군정 회장	34.5
홍콩중앙결산	20.5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22.7	9.0	9.7	11.6
상대	2.1	(4.1)	2.4	(0.5)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억원)	증가율 (%)	영업이익 (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억원)	EPS (위안)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배당수익률 (%)
2022	63.9	37.8	10.6	16.6	8.2	2.87	2.1	58.1	23.2	16.1	0.8
2023	89.0	39.5	15.0	16.9	11.9	2.97	3.5	33.0	27.4	10.6	0.8
2024F	115.2	29.3	19.6	17.0	15.6	3.93	32.2	28.0	28.8	7.9	1.2
2025F	141.9	23.2	24.2	17.1	19.3	4.86	23.8	22.7	28.1	6.2	1.4
2026F	170.5	20.1	29.3	17.2	23.4	5.90	21.3	18.7	27.0	4.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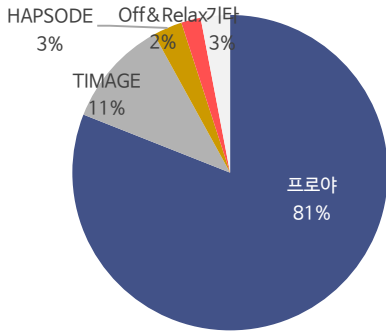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보유 브랜드 라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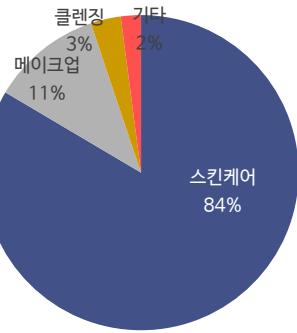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브랜드별 매출 비중 (2023)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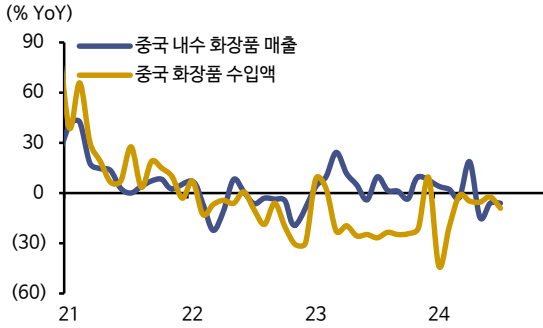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억위안, %)	1H21	2H21	1H22	2H22	1H23	2H23	1H24	2H24F	2023	2024F	2025F
매출액	19.2	27.2	26.3	37.6	36.3	52.8	50.0	65.1	89.0	115.2	141.9
프로야	14.9	23.4	21.3	31.4	28.9	42.9	39.8				
기타 브랜드	4.2	3.7	4.9	6.1	7.3	9.9	10.1				
매출액 YoY	38.5	14.7	36.9	38.4	38.1	40.4	37.9	23.4	39.5	29.3	23.2
프로야	31.4	26.3	43.1	33.9	35.9	36.7	37.7				
기타 브랜드	69.2	(28.2)	14.9	66.3	49.3	61.3	39.3				
매출총이익률	63.6	68.3	68.0	70.8	70.5	69.5	69.8	70.2	69.9	70.0	70.1
프로야	65.8	71.6	70.3	71.7	71.3	70.4	69.9				
기타 브랜드	56.9	48.5	59.3	67.7	67.9	65.9	69.8				
영업이익률	13.1	15.4	15.3	17.5	18.6	15.7	17.9	16.3	16.9	17.0	17.1
순이익	2.3	3.5	3.0	5.2	5.0	6.9	7.0	8.6	11.9	15.6	19.3
YoY	26.5	17.8	31.3	48.7	68.2	33.4	40.5	23.3	46.1	30.5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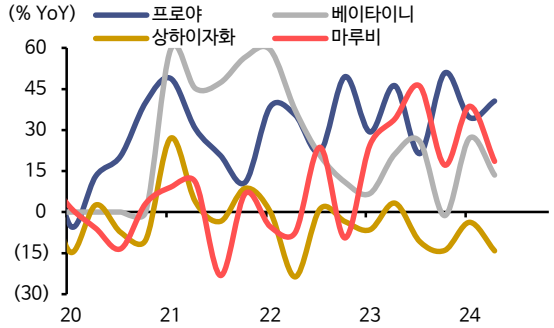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중국 내수 화장품 업황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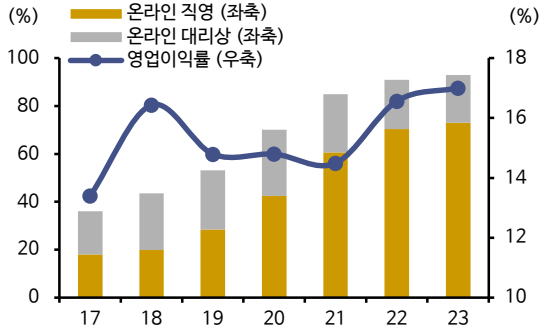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로컬 브랜드별 실적 차별화, 분기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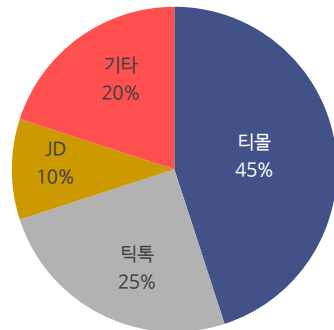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온라인 매출 비중, 90% 돌파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주요 온라인 플랫폼별 매출 비중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2023년 광군제(11/11) 화장품 브랜드 순위

No.	티몰 (스킨케어)	티몰 (메이크업)	틱톡 (종합)
1	PROYA	TIMAGE	PROYA
2	L'oreal	L'oreal	L'oreal
3	Lacnome	Winona	KANS
4	Estee Lauder	Zhiben	Jmoon
5	Winona	Olay	AMI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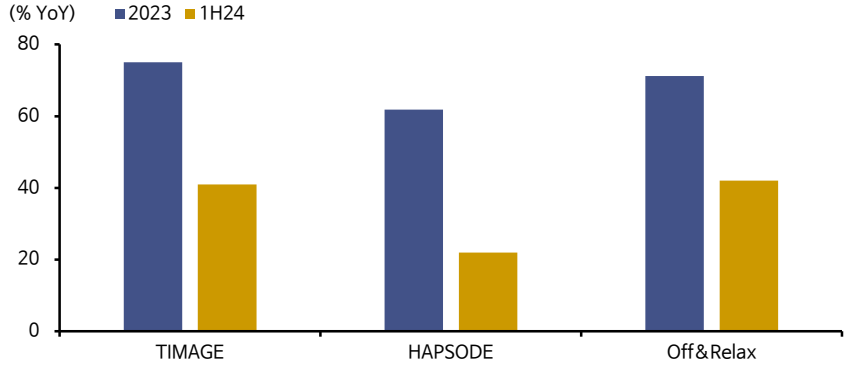
자료: 현지 언론, 신한투자증권

2024년 6.18 쇼핑 데이 화장품 브랜드 순위

No.	티몰		틱톡	
	스킨케어	메이크업	스킨케어	메이크업
1	PROYA	TIMAGE	PROYA	Florasis
2	Lacnome	CPB	L'oreal	YSL
3	L'oreal	에스티로더	KANS	FUNNYELe
4	에스티로더	YSL	Jmoon	PRAMY
5	LA MER	3CE	AMIRO	Cars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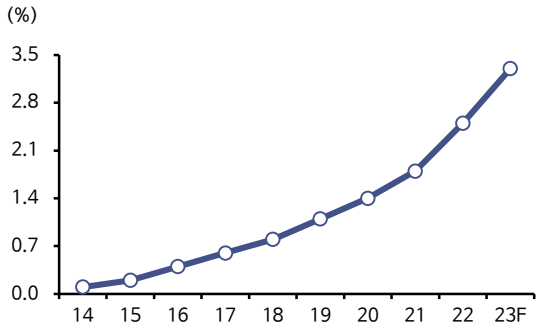
자료: 현지 언론,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핵심 자회사 매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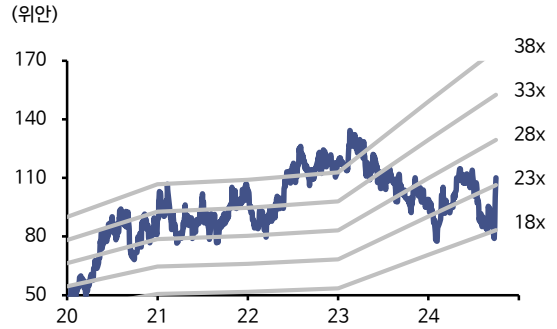
자료: 알트리아 웹사이트,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중국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



자료: 유로모니터, 신한투자증권

프로야 12개월 선행 PER 밴드 추이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투안 (3690.HK)

중국 빅테크 중 가장 좋은 선택지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WIND)	199.0HKD
✓ 상승여력	-6.7%	✓ 현재주가 (10월 7일)	213.2HKD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 전통 빅테크 3사(BAT)를 압도하는 실적 성장세

중국 소비 회복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야놀자+인터파크 티켓+카카오T+알바천국'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종합 제공. 차별화 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중국 빅테크 업체 중 유일하게 2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시현

서비스 소비(외식, 여행, 공연) 최적화 된 플랫폼. 3Q도 기대되는 실적

매크로 소비 부진에도 음식 배달 업계 압도적 지배력(M/S 63%)과 데이터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 마케팅 혁신, 비용 효율 개선 진행 중. 매출 비중의 74%를 차지하는 코어 로컬커머스(음식 배달+인스토어/호텔&여행 예매 수수료) 사업 부문 호조. 올해 주력했던 '공동구매 음식 배달' 서비스 큰 호황. 해당 서비스 일평균 주문량 1Q 500만건 → 2Q 600만건까지 증가, 동사 전체 음식 배달 주문량의 약 12%까지 확대

여행/레저 부문도 가성비 중심의 국내 여행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저가 호텔, 지방 도시 여행 패키지 등 서비스 공급을 늘려 2Q 관련 예약 건수 전년 대비 60% 급증. 이 밖에 非음식점 인스토어 서비스(리뷰, 홍보) 점포 확장, 회원제 도입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객의 60%가 해당 서비스로 유입. 나아가 신규 사업부 적자 폭도 빠르게 축소되는 중. 회사 경영진은 3Q에도 견조한 사업 성과 이어질 것이라 강조

주가 급등 후 조정 국면은 비중 확대 고려 필요. 중국 빅테크 중 최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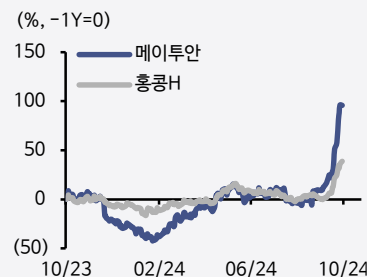
단기 주가 급등은 분명 부담스럽지만 1) 중국 빅테크 중 가장 견고한 실적 성장으로 이익 추정치 지속 개선, 2) 적극적 주주환원(6월 20억달러, 8월 10억달러 차사주 매입)으로 주가 하방 지지. 중국 빅테크 중 최선호

홍콩H 지수 (pt)	8,330.9
시가총액 (조원)	218.8
발행주식수 (백만주)	6,085
유동주식비율 (%)	87.2
52주 최고가 (HKD)	217.0
52주 최저가 (HKD)	61.1

주요주주 (%)				
Crown Holdings Asia Limited	7.9			
BlackRock	546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78.7	79.0	96.9	160.3
상대	42.3	48.5	57.4	115.9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억HKD)	증가율 (%)	영업이익 (억HKD)	영업이익률 (%)	순이익 (억HKD)	EPS (HKD)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배당수익률 (%)
2022	2,464	12.5	(94)	(3.8)	(75)	(1.22)	-	-	(5.2)	7.5	-
2023	3,055	24.0	159	5.2	153	2.33	흑전	33.4	9.1	3.0	-
2024F	3,692	20.9	373	10.1	348	5.59	140.0	38.2	10.0	6.5	-
2025F	4,284	16.0	523	12.2	484	7.78	39.2	27.4	12.1	5.0	-
2026F	4,877	13.8	633	13.0	610	9.80	26.0	21.8	12.8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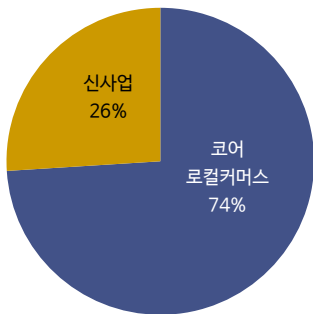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투안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억위안, %)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F	4Q24F	2023F	2024F	2025F
매출액	586	680	765	737	733	823	918	872	2,767	3,344	3,878
코어 커머스	429	512	577	551	546	607			2,069	2,466	2,848
신사업	157	168	188	186	187	216			698	849	949
매출액 YoY	27.0	33.8	21.1	24.8	24.6	19.3	20.1	18.3	24.0	20.9	16.0
코어 커머스	30.1	0.0	15.3	11.5	18.5	28.7			28.7	19.2	15.5
신사업	25.5	27.7	14.3	26.8	27.4	18.5			18.0	21.5	11.8
영업이익률	6.0	7.7	4.3	2.5	8.3	14.2	10.4	8.0	5.2	10.1	12.2
코어 커머스	22.0	21.8	17.5	14.5	17.8	25.1					
신사업	(32.0)	(31.0)	(27.2)	(26.0)	(14.8)	(6.1)					
EPS(위안)	0.5	0.8	0.6	0.4	1.0	1.8	1.5	1.1	2.2	6.6	8.3
YoY	흑전	흑전	흑전	흑전	75.9	141.3	129.7	197.2	흑전	140.0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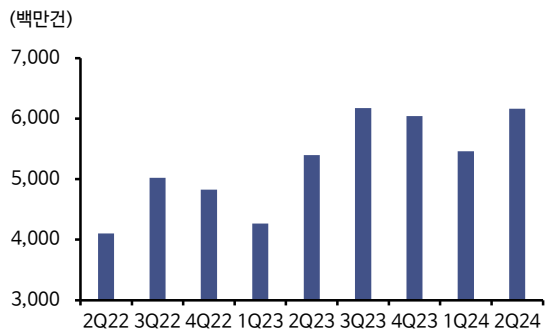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메이투안 사업부별 매출 비중 (2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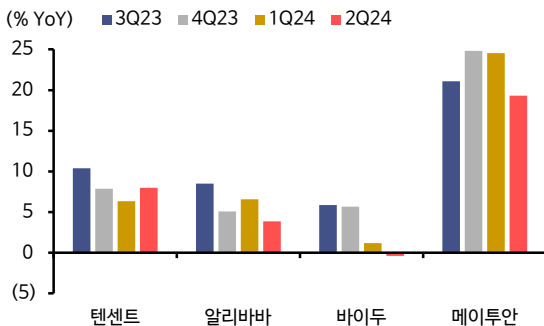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메이투안 배달 주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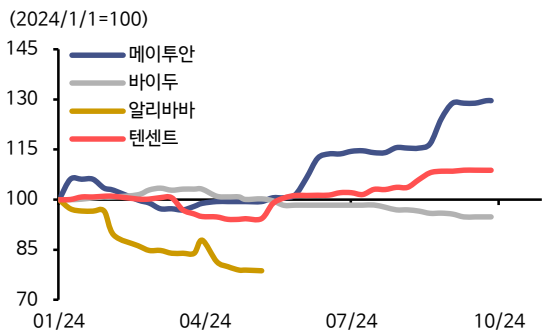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국 빅테크 업체 분기 매출 성장률 비교



자료: 각 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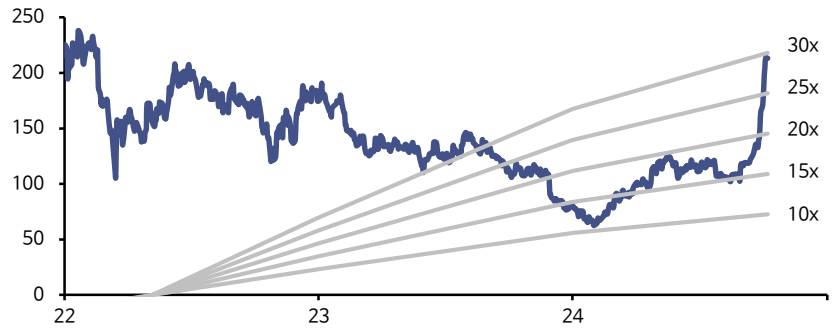
중국 빅테크 이익 추정치 변화 (24F EPS)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메이투안 12개월 선행 PER 밴드

(홍콩달러)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원석, 신승웅).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한국판 점도표에 주목



Fixed Income Strategist

안재균

☎ (02) 3772-1298

✉ jk.ahn@shinhan.com

대외 여건 변화 속 다가온 10월 금통위, 25bp 금리 인하 예상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70달러대를 넘어섰다. 미국은 9월 빅컷 인하 후 주요 경제지표의 안정세가 확인된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가겠지만, 추가 빅컷 기대는 낮아졌다. 대외 여건 변화 속 10월 금통위가 다가오고 있다. 시장 관심은 10월 금리 인하 여부, 추가 인하 가능성이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9월 전체 및 핵심 CPI 모두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를 하회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물가 안정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소비 역시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한다. 전체 카드승인실적 및 소비생활과 관련 깊은 주요 업종 8개 승인실적 증가세는 2023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이다. 내수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 11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10월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물가 안정과 소비 둔화 등을 근거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를 전망한다.

금리 인하 시 중립적 한국판 점도표 제시하여 시장 기대 약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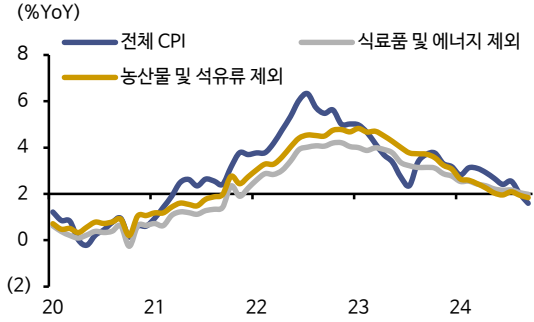
10월 금리 인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이다. 이미 시장금리는 2~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10월 금통위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진 않을 전망이다. 9월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4~5월 대비 38%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선부르게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경우 부동산 경기 재자극, 가계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

과거대비 높은 관리물가와 그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금리 인하 시 물가 재상승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동발 지정적학 리스크와도 연계될 수 있다.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한국판 점도표가 중요하다. 25bp 인하 시 3.25% 유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후 금통위의 향후 스탠스는 중립적이란 해석을 제공하여 시장 기대를 낮추려는 노력이 나타날 전망이다.

비둘기파적이기 어려운 한은, 금통위 전후 금리 상승 압력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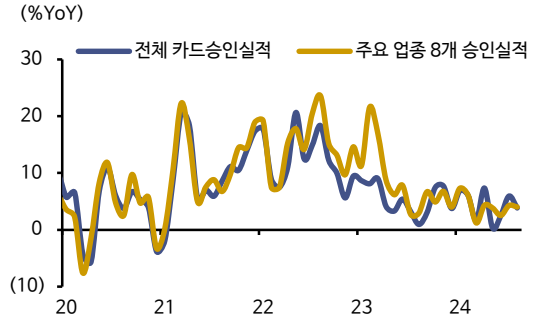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 비둘기파적 10월 금통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과거대비 강한 금리 인하 선반영을 보인 채권시장은 금통위 후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고 3년 기준 2.95% 내외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3/10년 스프레드는 미국 커브 스틱 동조화, 내년도 발행 증가 우려 등으로 확대 기조가 예상된다. 평균 15bp 내외 흐름 유지 속 스프레드 상단은 20bp까지 높아질 여지가 있다.

21년 3월 이후 첫 전체&핵심 물가 2% 동시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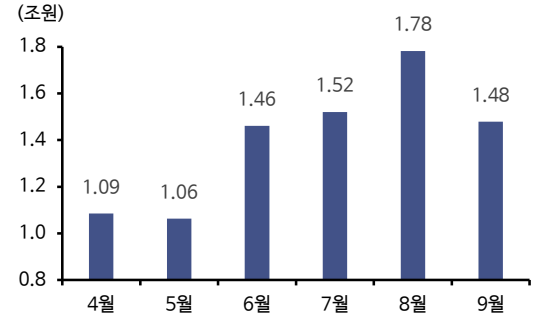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둔화되는 카드실적 증가율: 내수 상대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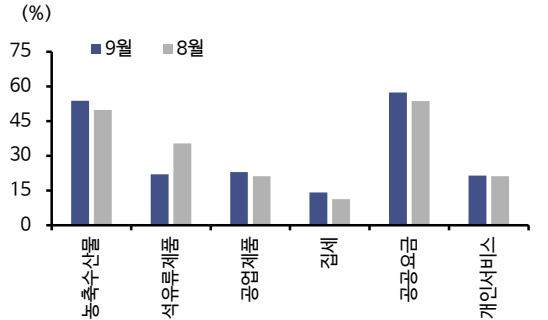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한투자증권 /주: 2024년 8월까지

9월 시중은행 주간 평균 주담대 증가폭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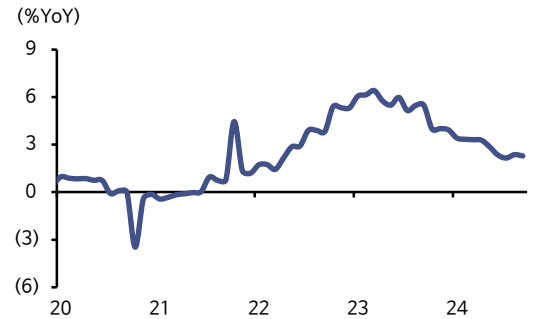
자료: 언론기사 참고, 신한투자증권 /주: 5대 시중은행 기준

물가 상승 기대 형성 요인: 공공요금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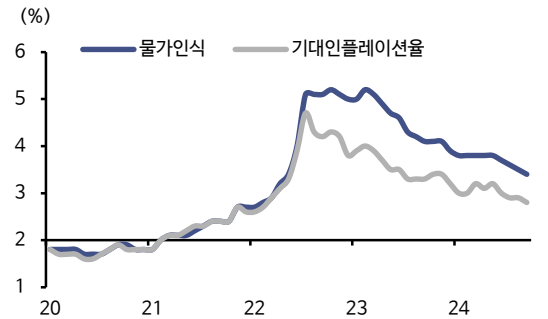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과거보다 높은 관리물가, 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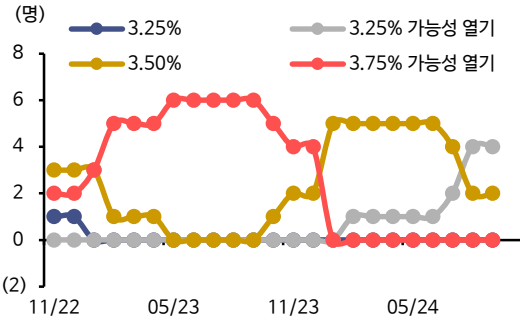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高물가인식 → 高기대인플레이션 → 통화완화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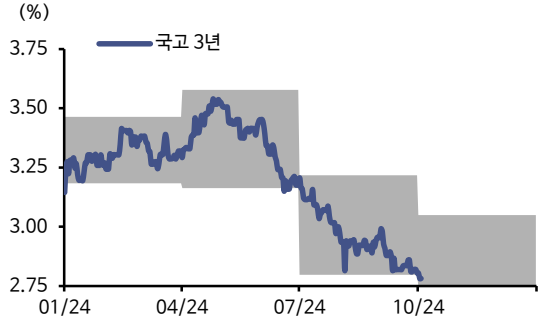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10월 한국판 점도표, 비둘기파 기조 후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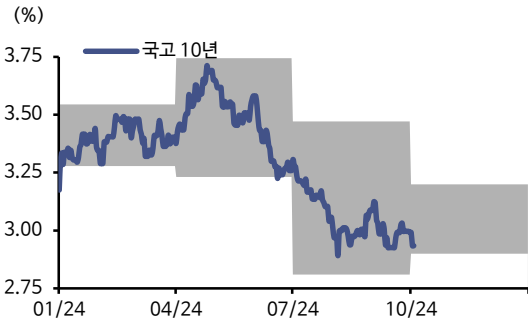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국고 3년 연간 밴드 2.75~3.05% 유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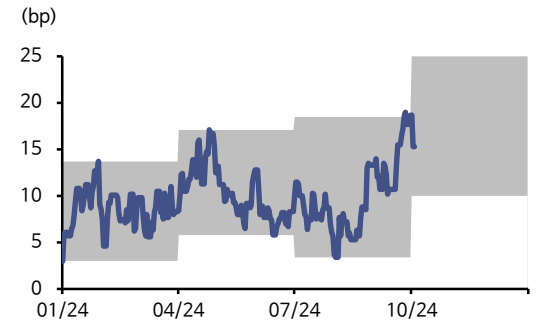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국고 10년 연간 밴드 2.90~3.20% 유지 예상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3/10년 스프레드 확대 기조 속 평균 15bp 흐름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안재균).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비중확대 (유지)

최규현, CFA 선임연구원
✉ cgh815@shinhan.com

신한생각 | 지금의 금리 인하는 펀더멘털 변화에 일조할 주요 팩터

2024년 9월 18일 미국 FOMC에서 50bp 기준 금리 인하 결정. 4년 반만에 다시금 금리 인하가 시작된 상황. 2020년부터 시작된 초저금리 시대의 시작은 글로벌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며 글로벌 수소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음(Bloomberg Hydrogen Benchmark Price Return Index의 2020년 저점(735.6pt) 대비 2021년 고점(1,538.0pt)은 약 2.1배/Plug Power의 2020년 저점(2.8달러) 대비 2021년 고점(73.2달러)은 약 26.5배/Bloom Energy의 2020년 저점(3.1달러) 대비 2021년 고점(42.7달러)은 약 13.9배)

2020년과는 달리 지금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산업의 펀더멘털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금리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 주가 상승을 위한 단단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구체화된 정책 추진을 가속화시킬 하나의 주요 동인은 금리 인하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서 2020년과 2024년이 다른 점은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이 구체화됐다는 점,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공적 자금 투입이 시작됐다는 점이 있음. 현재 청정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등 Upstream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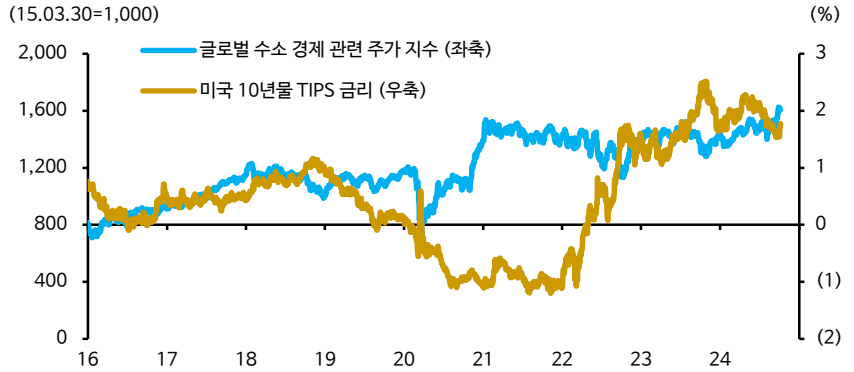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며 금리 인하는 프로젝트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음. 유럽,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이어 금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정 수소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의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경기가 꺾이지만 얹는다면 펀더멘털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

미국의 50bp 인하로 미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글로벌 경기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기 돌입과 맞물려 글로벌 수소 경제의 펀더멘털의 긍정적 변화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펀더멘털의 긍정적 변화는 결국 수주 잔고에서 확인 가능. 청정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 메이저 업체의 수주 잔고 증가는 글로벌 수소 경제가 성장을 위한 가속에 앞서 꿈틀거리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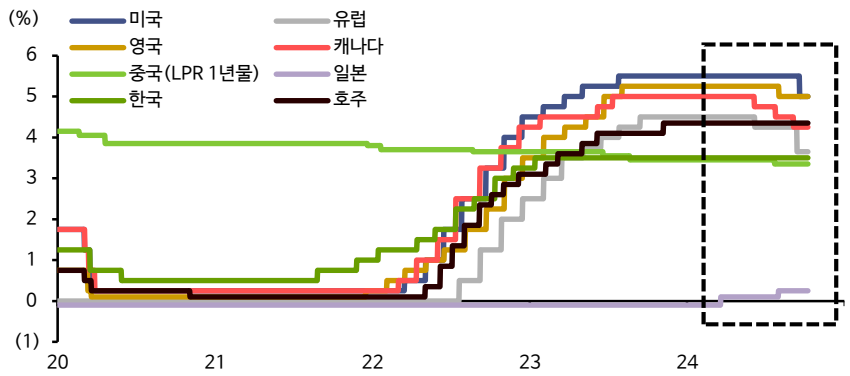
이제는 기대감만으로는 힘든 상황에 도달했으며 이 기대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외형 성장을 통한 어느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연속적인 외형 성장은 지속적인 수주와 수주 잔고 증가를 통해 가능케 할 수 있음. 이렇게 변화하는 펀더멘털은 고개를 떨구고 있던 센터멘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는 단단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

글로벌 수소 경제 관련 주가 지수 및 미국 TIPS 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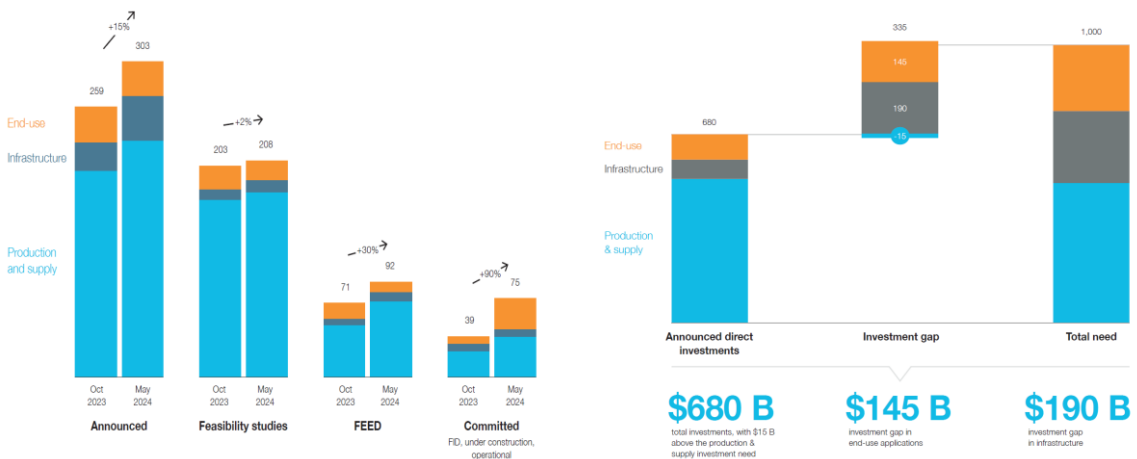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상기 주가 지수는 Bloomberg Hydrogen Benchmark Price Return Index임

2020년 이후 주요국 기준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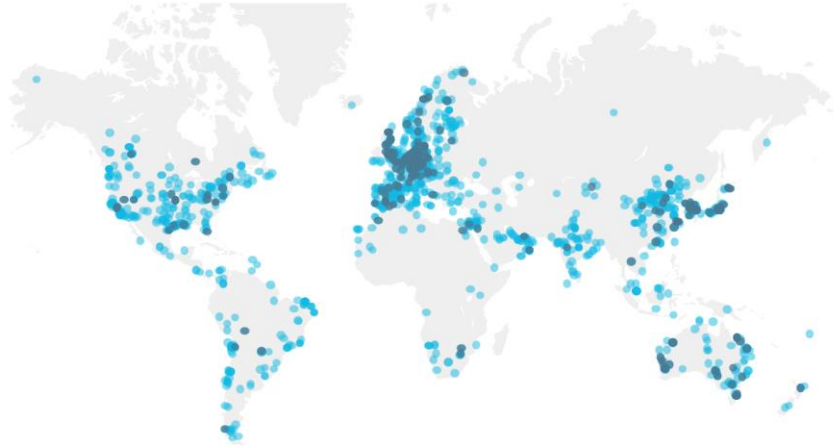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2030년까지 1) 수소 산업 관련 발표된 직접 투자 현황, 2) 발표된 직접 투자와 요구되는 투자의 차이



자료: Hydrogen Council, 신한투자증권 / 주: 1) 2024년 5월 기준, 2) 단위는 십억달러 기준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프 라인 비교: 2020년 12월 vs. 2024년 5월



228
Projects pipeline in December 2020, 102 have passed F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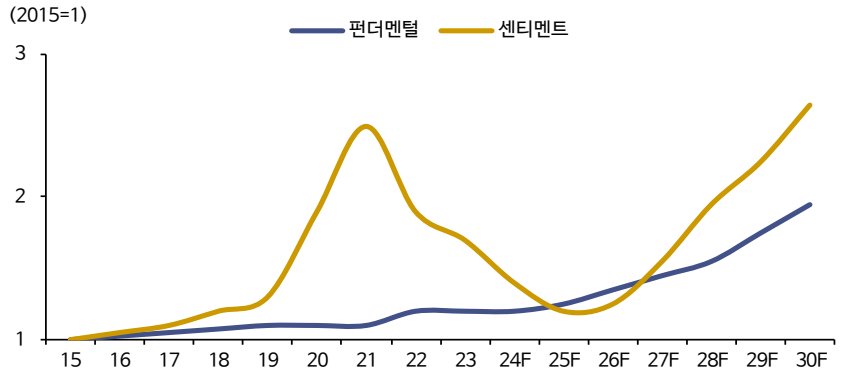
1,572¹
Projects pipeline as of May 2024, 434 have passed FID

7x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jects in the pipeline

4 Mt p.a.
increase in 2030 hydrogen capacity that has passed FID

자료: Hydrogen Council,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수소 경제의 편더멘털과センチメント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규현)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비중확대 (유지)

박광래 연구위원

✉ krpark@shinhan.com

한승훈 연구원

✉ snghun.han@shinhan.com

신한생각 기대감에 대한 베팅은 연말까지 유효할 전망

중국과 한국의 실물 경기 지표 발표 시 철강재 가격과 주가의 단기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있음

'China FOMO'를 걱정하게 만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중국 인민은행은 9월 24일 지급준비율과 부동산담보대출금리를 각각 50bp씩 인하했다. 2주택 계약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고, 올해 안해 지급준비율을 25~50bp 추가 인하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26일에 있었던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재정정책 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촉구와 관련한 언급들이 나왔다. 중국 경제의 뇌관이었던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주식시장은 급등했다. 강력한 경기부양책 발표는 철강 원재료 및 철강재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부양책 발표 이후 다렌상품거래소(DCE) 기준으로 철광석은 20.0%, 원료탄은 2.1% 가격이 상승했다. 상해기화교역소(SHFE) 기준 철강재 가격은 철근이 8.9%, 열연은 10.9% 상승세를 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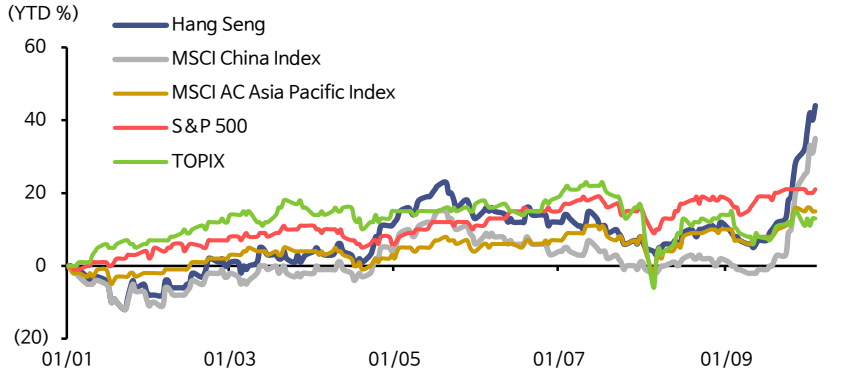
들다리도 두드리고 가고 싶은 中 철강 시장 참여자들

분명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철강 관련 지표들은 상승했으나 중국 주식시장 지수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성과인 듯 하다. 철강재와 원재료 간 가격 흐름도 다소간의 온도차를 보인다. 중국 철강 수요 관련 지표들이 악화 일로를 지나고 있어 부양책이 업황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4일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부동산 거래는 기대만큼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선부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철강 공급 증가로 이어져 기대했던 수급 개선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 발표, 중국 수입 오퍼가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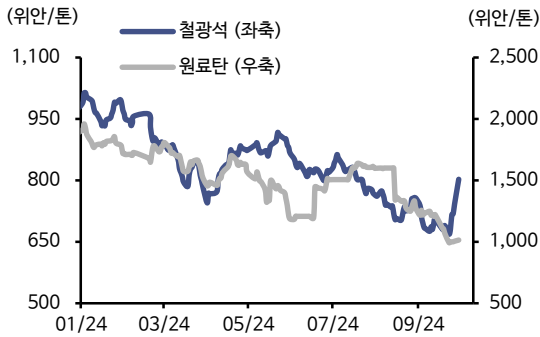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Pure Player로 분류할 수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각각 16.5%, 18.9%의 추가 상승을 시현했으나 중국 지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 애매모호한 수익률의 원인은 국내 철강 수요의 부진에서 찾을 수 있겠다. 실수요 부진으로 인해 유통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요 부진은 업체들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철강 주식의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의 자발적인 공급 조절 노력으로 인해 철강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고,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철강재 유통가격의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중국 수출 오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연초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주요 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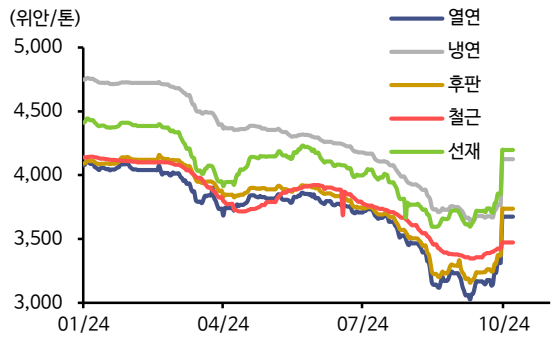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국 철광석, 연료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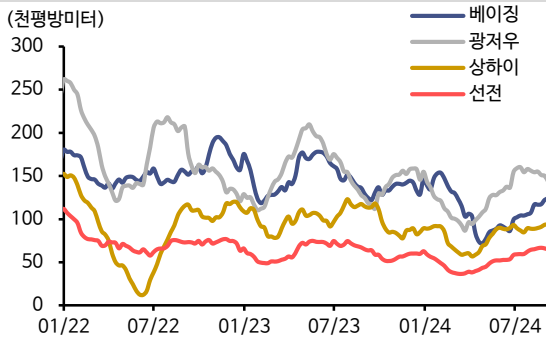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신한투자증권

중국 철강재 유통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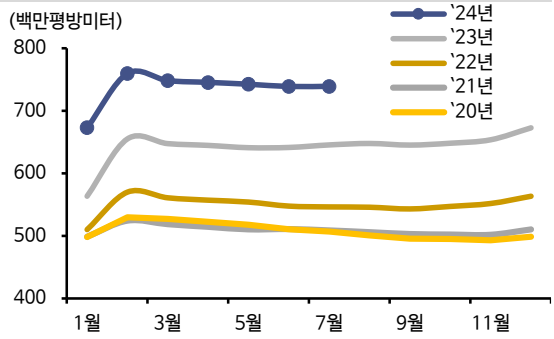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국 1선도시 주간 주택 전체 판매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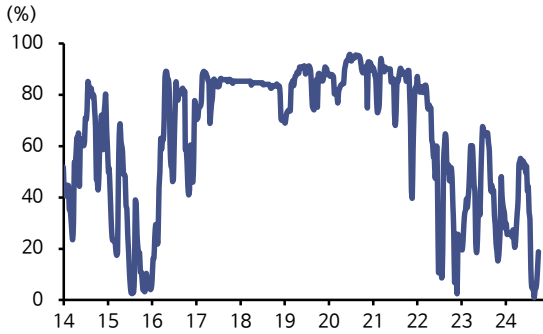
자료: CREI, 신한투자증권

중국 주택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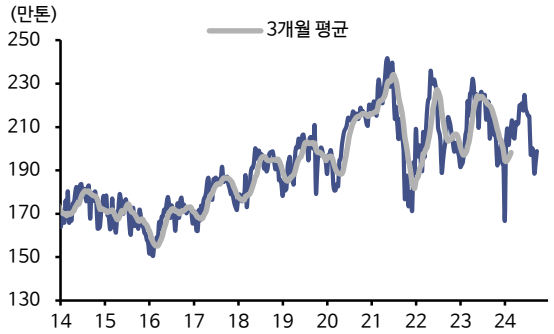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국 수익 제강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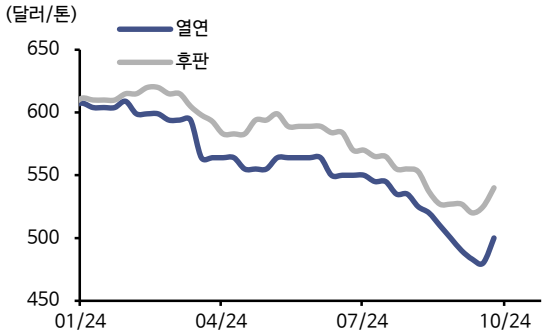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신한투자증권

중국 일평균 조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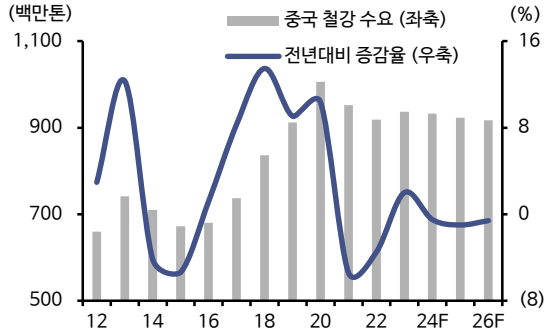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신한투자증권

중국산 수입 오퍼가



자료: 스틸데일리, 신한투자증권

중국 철강 수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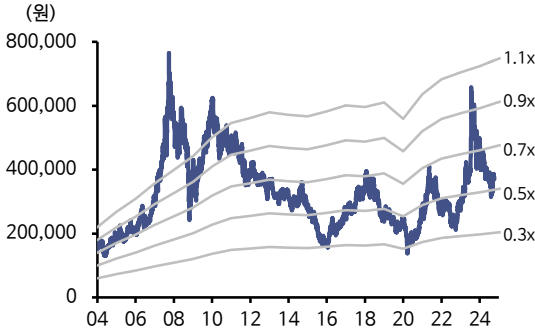
자료: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신한투자증권

철강금속 커버리지 업체 실적

단위: 십억원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F	4Q24F	2023	2024F
POSCO홀딩스	매출액	19,380.9	20,121.4	18,960.8	18,664.0	18,052.0	18,510.0	18,677.9	19,136.4	77,127.1	74,376.3
	영업이익	704.7	1,326.2	1,196.2	304.0	583.0	752.0	875.9	951.3	3,531.1	3,162.2
	순이익	726.4	689.7	488.2	(206.4)	547.0	530.0	488.1	425.0	1,698.0	1,983.9
현대제철	매출액	6,389.1	7,138.3	6,283.2	6,104.2	5,947.8	6,041.4	6,022.8	6,227.7	25,914.8	24,178.3
	영업이익	333.9	465.1	228.4	(220.1)	55.8	98.0	95.3	186.3	798.3	435.4
	순이익	228.5	297.4	134.9	(192.9)	31.5	(7.4)	46.2	20.6	461.2	90.9
세아베스틸지주	매출액	1,127.3	1,107.9	960.4	888.0	953.1	970.1	934.6	1,007.1	4,083.5	3,864.9
	영업이익	71.6	82.3	41.7	0.5	21.3	64.6	36.0	53.0	196.7	174.9
	순이익	57.3	48.3	32.3	(8.3)	16.1	47.3	22.1	33.3	128.3	118.8
KG스틸	매출액	818.6	888.0	884.9	838.3	818.6	858.4	852.6	825.5	3,429.8	3,355.1
	영업이익	81.3	85.0	80.2	33.9	52.1	74.5	74.0	59.9	280.4	260.5
	순이익	53.9	56.6	57.3	66.2	4.0	38.2	51.9	43.8	234.4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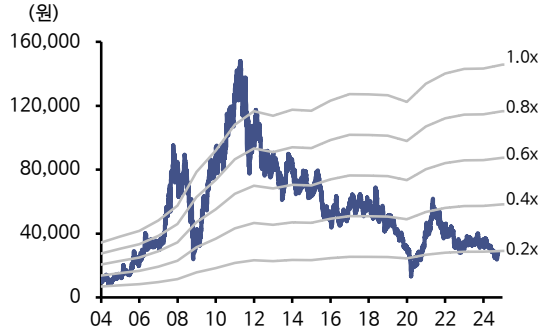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POSCO홀딩스 12개월 선행 PB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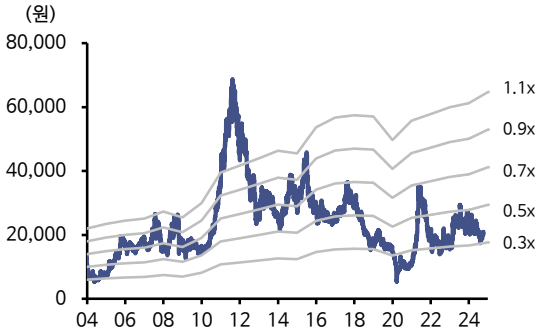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현대제철 12개월 선행 PB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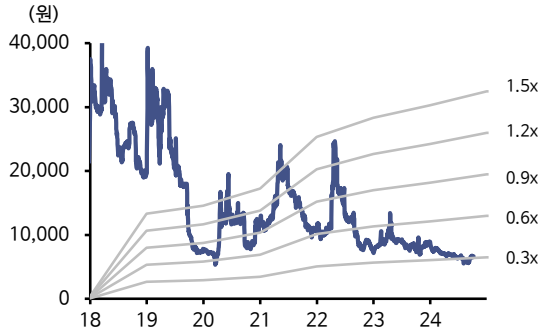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세아베스틸주주 12개월 선행 PBR 밴드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KG스틸 12개월 선행 PBR 밴드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광래, 한승훈)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POSCO홀딩스, 현대제철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POSCO홀딩스, 현대제철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차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비중확대 (유지)

박현진 연구위원

✉ hpark@shinhan.com

주지은 연구원

✉ jieun.ju@shinhan.com

신한생각 어려운 증시, 중국이 헤어날 모수일지도...

전일 신한 소비재 기업 Corporate Day 1일차로 실리콘투, 신세계인터내셔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애경산업을 초청. 해당 기업들의 3Q24 및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공유함. 단연 투자자 관심은 미국 화장품 유통사 실리콘투에 쏠렸고, 그에 걸맞게 하반기 실적 자신감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

그밖에 중국 소비 수혜주로 애경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한 시장 관심도 매우 높았음. 다만 양사 모두 당장 3Q24 중국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내수 기저효과 부각으로 3Q24 소폭의 실적 회복 예상

미국 수출 성장 견조, 다만 과하게 높은 실적 기대치가 독

실리콘투의 미국 시장 톤을 정리해보면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에센스 > 스킨케어제품류 > 클렌징제품류 > 색조로 이어지는 카테고리 성장을 체감하는 바 중/장기간 미국 내 수출 성장은 유효하다고 평가. 미국 외 서구권 지역들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화장품 업체의 개선 포인트!

다만 미국 수출 성장 수혜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실제 공표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이에 비해 주가도 중/장기간 올라있어 심리적으로 피로도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 미국발 성장은 중/장기간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은 게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됨

단기 차선책은 중국! 주가 괴리 좁힐 기회

오히려 단기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 지원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들의 주가 회복 기대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질문이 많았음. 그간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수차례 나타냈으나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높음

중국이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연말 소비쿠폰, 현금 지급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 차선책으로 중국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것을 추천. 전일 IR 기업 중 애경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관련 수혜 가능. 애경산업이나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3Q24 중국 실적이 다소 기대치를 하회하나, 4Q24~2025년 중국 실적 기대감을 꾸준히 키울 수 있는 기업들임

실리콘투(N/R) 선호도 ★★★★★☆

- 3Q24 전분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하반기 이벤트가 10~11월에 겹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분위기 호조
- 주요 바이어 중 조선미녀는 여전히 썬크림이 좋은 상황. 미국, 유럽, 중동에서 조선미녀 썬크림 인기 지속. 썬크림이 미국 외 지역에서도 확대되는 트렌드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판단. 이밖에 세럼, 클렌징, 토너로 카테고리 확장 시도 중
- 또 다른 주요 바이어인 아누아는 여성초 라인 인기 지속. 코스알엑스는 평이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며 Top3 고객사 차지
- 하반기 눈여겨 볼 신규 브랜드는 라운드랩, 토코보, 티르티르, 바이오던스, 달바, 이지엔트리가 있음. Top10 브랜드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 스타일코리아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군은 여전히 스킨케어. 스킨케어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며, 썬케어 & 클렌징 & 마스크팩 포함 시 80~90% 차지. K뷰티의 인기는 스킨케어가 이끌고 있으며, 메이크업류도 다양한 브랜드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가 히트 제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음
- 미국 신규 물류센터 계약 완료. 캘리포니아에 5천만불 들여서 매입한 상황. 실사용 시점은 올해 말~내년 초로 예상. 기존 물류 창고 대비 5배 이상의 규모지만, 그만큼의 물량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음. 하지만 미국 시장 전개 및 오프라인 시장 성장을 고려하면 이정도 규모의 물류창고 필요하다는 판단
- 내년까지 캘리포니아 외 추가로 들어갈 CapEx는 아직까지 예상되는 부분은 없음. 다른 지역은 임대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상황
- 추가로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GP 30%초반대를 항상 유지하려고 함. 이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는 판관비를 효율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영업이익을 더 확보하고자 함.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유럽 등의 지사들이 성장하면 그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운반기 개선 가능
- 지분투자 해놓은 작은 브랜드사들의 기조는? 대표적으로 토코보, 편강울, 헤이미쉬가 있는데 꾸준한 성장 중. 저희가 투자했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가 왕이 되는 구조는 아님. 시장에 잘 소구하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
- 미국 파업은 실질적으로 3일만에 끝나서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보름 이상의 딜레이는 없을 것. 일주일 정도의 딜레이 예상 중

신세계인터내셔널(17,000원, BUY), 선호도 ★★☆☆☆

- 최근 실적 흐름은 2022년 최고조에서 2023년 셀린 브랜드 종료로 실적 감소. 2024년 상반기에는 셀린 브랜드 종료 효과 제거되면서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
- 2024년 상반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은 해외패션 -5%, 국내패션 -11%, 수입 코스메틱 +10%, 제조 코스메틱 +14%, 자주 -9% 기록. 이런 흐름이 3Q24에도 유사할 전망
- 해외패션에서 OTB그룹 브랜드가 종료 브랜드에 해당. 작년 3분기 70억원 감소 반영, 올해 40억원 감소 반영 예정. 그럼에도 어그, 폴스미스, 에르노, 에르템 브랜드의 성장으로 3Q24 해외패션 매출 플랫폼 성장 가능
- 국내패션에서 보브, 지컷 지속 역성장. 해외패션과 국내패션의 온도차는 소비 트렌트 측면과 가격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프리미엄 의류 혹은 저가 의류에 대한 선호도 증가 영향. 따라서 3Q24 국내패션 매출은 전분기와 유사한 흐름
- 내년 신규 브랜드 런칭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3개 정도 런칭할 전망. 기존에는 적자 브랜드를 안고 갔다면 올해부터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종료하고 있음. 그 영향으로 올해 매출 감소세이지만 내년부터 이 효과가 줄어들 것
- 올해 신규로 런칭한 할리데이비스 성장 기대. SI빌리지와 무신사 사업 시작. 젊은 브랜드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포지셔닝. 기존 운영하던 포트폴리오에 없던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긍정적. 내년부터 일본, 중국으로 수출 진행
- 어뮤즈 연간 매출 가이드스 500억원 변함 없음. 연결 실적 반영은 4Q24로 예상.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30%이지만, 면세 및 올리브영 채널 감안 시 해외 매출 비중 60%로 추산. 향후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전망
- 제조 코스메틱 중 비디비치는 연간 500억원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브랜드. 중국 매출이 90% 이상이며, 중국 경기부양책이 플러스 알파 요인일 것이라 생각
- 연작, 스위스퍼펙션도 중국 매출 비중 30~40% 수준. 스위스퍼펙션은 내년부터 북미 중심으로 채널 확대할 방침
- 수입 코스메틱 매출 성장 둔화의 주요인은 소비 침체 영향과 바이레도 매출 감소 영향. 9/1부로 바이레도 일부 직진출
- 자주는 올해까지 매출 자체는 지속적 감소 전망. 대신 수익성 확보하며 연간 턴어라운드 예상. 비효율 채널 조정에 따른 것
- 밸류업 예고 공시 9월 중순에 한 바 있음. 4분기 중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널, 광주 신세계 밸류업 공시 할 예정. 주주환원 정책은 논의 중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N/R), 선호도 ★★☆☆☆

- 3Q24 실적은 시장 기대치 못 미칠 전망.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 분기별 매출 흐름은 4분기(블랙프라이데이) > 2분기(N주년 행사) > 3분기 > 1분기
- 3Q24 월별 흐름은 7~8월 분위기는 2분기 성장률을 따라오는 정도로 좋았지만, 9월 초부터 급격하게 매출 감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심리 위축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가 9월 말까지 지속
- 3Q24 카테고리별로는 맨즈는 비즈니스 캐주얼 성장 지속. 골프는 무더위 길어진 영향으로 부진. 이밖에 다른 카테고리 영역에서는 큰 변화 없음
- 3Q24 영업이익 부진이 전망되는 요인으로는 인센티브 지급, 우기 모델료 반영 시작, 매출 규모 감소로 구분 가능
- 중국은 9월에 매장 4개 오픈하면서 총 7개 매장 오픈 완료. 테스트매장까지 총 8개 운영 중. YY스포츠에서 본인들이 BEP라고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은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매장 오픈에 집중하겠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중
- 중국 매출도 2Q24 21억원 발생했는데, 해당 매출에는 1차 수주회와 2차 수주회 매출이 모두 인식되면서 가을 시즌 9부 레깅스 및 브라탑이 2분기에 매출 인식됐었음. 3분기에는 일부 리오더 제품 및 바람막이 제품까지만 나감. 아직 헤비 아우터 및 기모레깅스가 나가지 않아서 이는 4분기 매출로 인식될 예정
- 올해 중국 매장 15개 내외까지 오픈 예정. 내년에는 100개까지 오픈 예정. 올해는 50평 내외 큰 평수로 출점했다면 내년부터는 20~30평대도 오픈할 예정
- 일본은 다음 주 도쿄 3호점 매장 오픈 예정. 일본 자회사 설립한지 1년차로 내년 정규 매장 오픈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
- 어너더레벨은 작년 말부터 준비 중. 추가적인 브랜드는 아니고 잭시믹스 안에서 블랙라벨처럼 프리미엄 라벨을 새로 런칭하는 것. 내년 상반기 런칭 목표

애경산업(N/R), 선호도 ★★★★★

- 2분기 대비 3분기 크게 달라진 점은 중국. 3분기 여름철로 비수기 시즌이며, 상반기 가져간 물량 해소가 다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 보임. 이에 따라 B2B 매출 둔화
- 9월까지의 광군제 물량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음. 빠르면 9월말~10월인데 올해는 9월에 나가지 않은 상황. 10월은 휴일이 많다 보니 아직 트렌드 보기 이름. 광군제 대비해서 상반기 메스티지 상품을 신규로 출시했음. 해당 제품의 기획세트 제작해 광군제 때 활용할 예정. 이밖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속할 것
- 미국은 3분기 에센스 팩트에 대한 바이럴 활동 꾸준히 진행. 9월 썬스크린 제품 출시하며 SKU도 확대하고 있음. 아직은 반응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케팅 투자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 최근 미국에서 쿠션 팩트 인기. Age20's도 6개 쉐이드에서 연내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루나는 국내와 일본에서 인기. 국내에서는 올리브영과 디지털채널 통해 판매 중. 컨실러뿐 아니라 다양한 색조 제품 출시하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일본에서는 컨실러와 쿠션 팩트 지속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며 실적 강세. 루나의 세컨브랜드를 다이소에서 신규 출시할 계획
- 중국 외 지역 투자 본격화. 마케팅 아래 콘텐츠 조직 새로 만들 계획. K뷰티의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해 이를 내재화 할 것
- 생활용품에서 차이나플랫폼 할인 영향은 불가피. 국내 디지털채널에서 타격 받고 있으며, 홈케어 제품 타격이 큼.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가격 경쟁이 심한 홈케어보다 퍼스널케어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바꿔나갈 예정
- 밸류업 공시를 4분기 중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밸류업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자사주 꾸준히 매입 중인데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 성장 위한 M&A 혹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성향 30% 이상으로 배당하겠다는 중장기 계획 공시한 바 있음. 그 수준에 맞춰서 꾸준히 배당 확대해나갈 예정
- 내부적으로 현금 활용을 위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외부 브랜드 투자 검토 중. 특히 화장품 글로벌 사업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방안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외부에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음. 최소 내년초까지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할 것
- 중국 사업을 예측하는 데 있어 Key Factor는 중국 매크로 변수라고 생각. 중국 현지 시장에서 제품 판매하고 있고, 지금은 온라인 중심이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면 오프라인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하기 때문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현진, 주지은)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펩트론 (087010)

릴리다. 실패는 없다.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Not Rated	✓ 목표주가	-
✓ 상승여력	-	✓ 현재주가 (10월 7일)	50,200 원

[계약/바이오]

엄민용 연구위원
✉ my.eom@shinhan.com

정희령 연구원
✉ hr.jung@shinhan.com

신한생각 플랫폼 검증은 과정일 뿐. 잠재력에 큰 기대

펩트론은 릴리와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 릴리가 보유 중인 '약물들'이 적용되는 연구로 다품목 1개월 지속형 검토 예정. 양사 모두에게 굉장히 잠재력 큰 공동연구가 개시

기술이전이 아닌 평가 계약을 한 이유?

릴리는 기술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는 성공 시 파급력,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 양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약을 위해 1상 결과 필수적

지난 11월 LG화학과 관련계약한 성조속증 치료제 '루프윈' 1개월 지속형 제품 개발 이력 보유. 이번 공장 증설 계획이나 기술 평가 계약이 본계약 및 상업화로 이어질 가장 큰 증거로 판단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목적'으로 한 공시 내용에 따라 릴리는 기술 평가 기간 약 14개월, 2025년 4분기 내 임상 1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본 계약 추정. 임상 시료 생산 후 연말, 또는 연초 임상 1상 IND 신청 예상

Valuation &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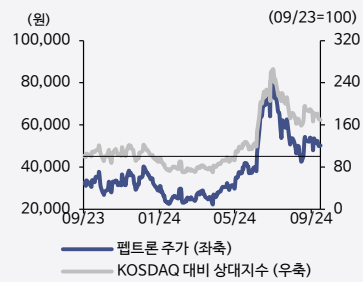
펩트론 본계약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 알테오젠 또한 머크와 2020년 비독점 계약 후 지난 2024년 2월 임상 3상 중 독점 및 판매 로열티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키트루다SC 1개 품목만 1.4조원 규모로 확대. 공시 내용 제한적인 상황으로 기업과 소통 후 추후 보고서로 정식 업데이트 예정

Revision	
실적추정치	-
Valuation	NR

시가총액	1,037.0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23.3백만주(90.2%)
52주 최고가/최저가	81,800 원/22,150 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71,671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7.2%
주요주주 (%)	
최호일 외 7인	9.5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18.3	(22.0)	48.7	34.9
상대	7.0	(15.4)	55.5	51.9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19	1.8	(12.7)	(17.7)	(17.0)	(63.1)	10.7	(31.0)	-
2020	3.1	(17.6)	(18.4)	(14.5)	(34.9)	4.4	(13.2)	-
2021	6.6	(15.7)	(15.0)	(15.2)	(21.6)	3.7	(17.1)	-
2022	5.8	(15.2)	(15.1)	(10.5)	(26.1)	3.0	(14.5)	-
2023	3.3	(15.9)	(15.9)	(52.1)	(35.7)	23.0	(64.2)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펩트론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구분	프로젝트	적응증	발굴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비고
[Smart Depot]	루프윈	PT105	성조숙증 전립선암					BE 임상 완료 - 품목허가 준비 중
		PT106						글로벌 시장 타겟
	PT320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 (희귀의약품)					환자 투약 시작	
	PT403	당뇨, 비만					MTA 완료	
	PT404						기술평가 (추정)	
	약효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 및 펩타이드 신약	PT-CNP021	연골무형성증					
	PT320	외상성 뇌손상 다계통위축						
		파킨슨병					국내 2a상 종료	
[PEPGEN]	PAb001:ADC	암					치루 제약	
항체의약품 Antibody	PAb001:CAR-NK						테라베스트	
	PAb001-IC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엄민용, 정희령)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야스카와 전기 (6506.JP)

부진할 수밖에 없는 주가

2024년 10월 8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LSEG)	5,987.5 엔
✓ 상승여력	19.9%	✓ 현재주가 (10월 7일)	4,993.0 엔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하반기 실적도 예상 하회할 가능성 존재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중국, 반도체, 전자기기향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복 속도가 부진하면서 FY24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일본 공작기계 산업 대비 부진한 신규 수주와 하반기 예상 환율 145엔(상반기 154엔)을 감안한다면, 하반기 실적도 회사의 가이드언스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수와 업종 대비 부진한 흐름 전망

1HFY24 Review: 중국과 유럽 부진 지속

매출 2,616억엔(-9.5% YoY), 영업이익 229억엔(-30.7% YoY), 순이익 179억엔(-26.3% YoY), 주당순이익 68.29엔(-26.3% YoY)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매출 2,761억엔, 순이익 210억엔, 주당순이익 88.17엔) 하회. 엔화 약세에 따른 환율효과(영업이익 +39억엔)에도 영업이익률 8.8%로 전년 11.4% 대비 2.7%p 축소되면서 둔화

중국과 반도체 & 전자제품 부분의 회복 부진으로 FY24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드언스를 각각 4.7%, 8.6% 하향 조정한 반면, 계열사 지분 매각 이익 반영으로 순이익은 18.5% 상향 조정

일본 공작기계 수주 반등에도 야스카와 전기 신규 수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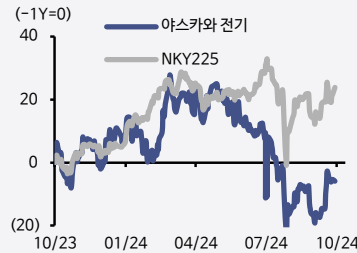
2분기 신규 수주는 1,263억엔(+1.2% YoY)으로 4QFY22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는 바닥을 다진 것으로 판단. 다만, 일본 공작기계 중국향 수주가 5월 이후, 두자릿수 반등한 것에 비해 야스카와 전기의 중국향 신규 수주는 감소 지속하면서 업종 수주 증가율 하회. 일본 공작기계 수주는 8월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한지 3개월만에 감소 추세로 전환. 중국 경기 부양책이 기계 수주 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 소요

니케이 225 (pt)	39,332.74
시가총액 (조원)	12.1
발행주식수 (백만주)	261.4
유동주식비율 (%)	98.2
52주 최고가 (엔)	6,877.0
52주 최저가 (엔)	4,083.0

주요주주 (%)	
Nomura Asset Management	6.3
APG Asset Management	4.5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12.2	(16.4)	(6.7)	(15.2)
상대	7.9	(10.8)	(33.3)	(30.7)

주가



2월 결산	매출액 (백만엔)	증가율 (%)	영업이익 (백만엔)	영업이익률 (%)	순이익 (백만엔)	EPS (엔)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FY2022	556	16.0	68	12.3	52	198.1	35.0	27.1	16.2	3.8	18.4
FY2023	576	3.5	65	11.3	51	193.9	(2.1)	31.6	13.6	3.3	19.3
FY2024F	568	(1.4)	64	11.2	50	186.5	(3.8)	26.2	12.1	3.1	16.5
FY2025F	611	7.6	78	12.7	59	220.3	18.1	22.5	12.9	2.8	13.7
FY2026F	650	6.3	88	13.6	67	249.9	13.4	19.9	13.2	2.6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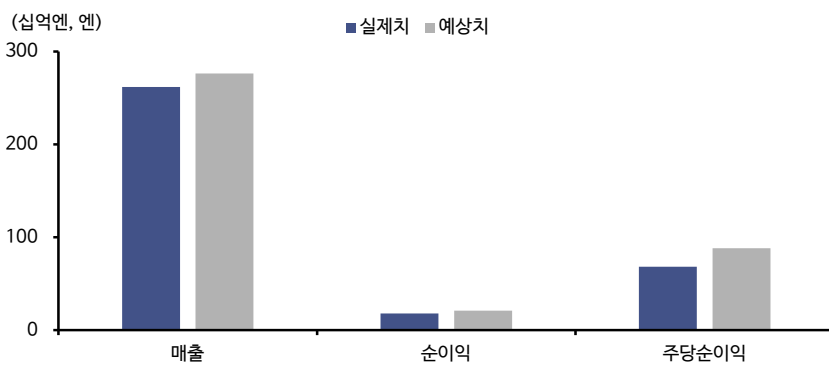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엔, %)	1QFY23	2QFY23	3QFY23	4QFY23	1QFY24	2QFY24	3QFY24F	4QFY24F	FY23	FY24F	FY25F
매출액	143	147	135	151	132	129	142	152	576	568	611
모션컨트롤	72	69	64	65	59	60	67	69	279	251	274
로보틱스	53	60	55	68	57	55	63	67	237	255	272
시스템엔지니어링	12	11	11	12	11	8	9	10	56	39	40
기타	6	7	6	6	6	6	6	8	41	28	28
매출액 YoY	18.5	2.3	(6.0)	1.9	(7.1)	(11.9)	5.2	0.2	3.5	(1.4)	7.6
모션컨트롤	33.3	8.6	(5.0)	(5.1)	(17.0)	(13.0)	4.5	6.2	1.9	(9.7)	9.1
로보틱스	20.3	2.3	(4.8)	6.5	8.0	(7.7)	14.5	(0.8)	4.1	7.3	6.7
시스템엔지니어링	1.9	23.8	33.7	(6.7)	(14.6)	(25.0)	(13.4)	(16.0)	8.1	(31.5)	3.0
기타	67.7	34.6	21.9	(6.1)	(5.2)	(15.7)	0.5	20.0	(10.1)	(31.4)	0.1
영업이익	16	17	14	20	11	12	16	21	65	64	78
영업이익률	11.5	11.3	10.0	13.0	8.4	9.1	11.3	13.8	11.3	11.2	12.7
YoY	17.9	(4.0)	(20.1)	(2.4)	(32.3)	(28.9)	19.3	6.4	(4.5)	(2.3)	22.1
모션컨트롤	10	10	8	10	6	5	9	10	38	32	40
로보틱스	6	7	6	7	5	6	8	8	25	27	32
시스템엔지니어링	1	0	0	3	1	1	1	3	6	6	6
순이익	12	13	11	16	9	9	12	16	51	50	59
순이익률	8.2	8.6	7.8	10.5	6.9	6.7	8.1	10.3	8.8	8.8	9.6
YoY	12.6	(5.9)	(22.3)	8.9	(21.1)	(31.1)	8.9	(1.9)	(2.1)	(1.6)	18.0
EPS(엔)	44.6	48.0	40.4	60.8	35.2	33.1	43.8	59.7	193.9	186.5	220.3
YoY	12.6	(5.9)	(21.7)	9.0	(21.1)	(31.1)	8.3	(1.8)	(2.1)	(3.8)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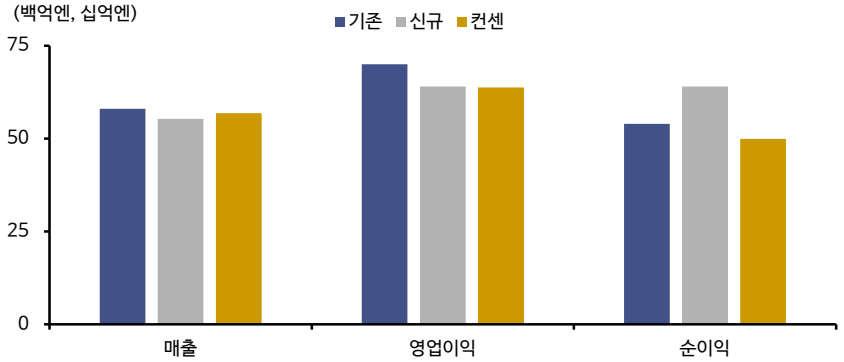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1HFY24 실적 vs 시장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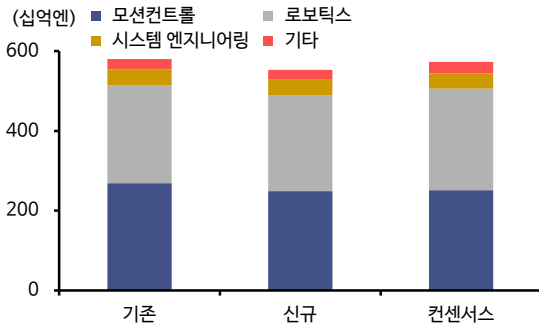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FY24 가이드نس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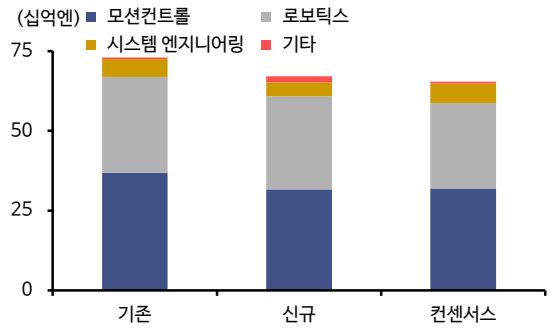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주1) 매출 백억엔, 영업이익&순이익 십억엔

FY24 제품별 매출 가이드نس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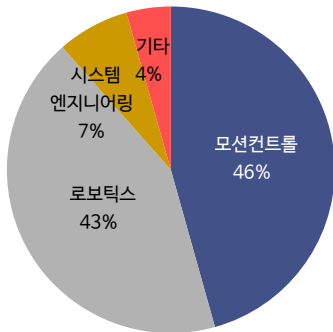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FY24 제품별 영업이익 가이드نس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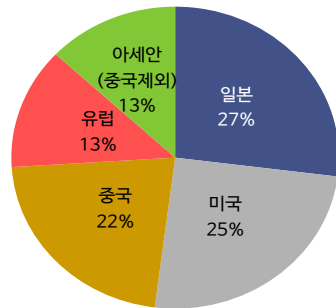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1HFY24 사업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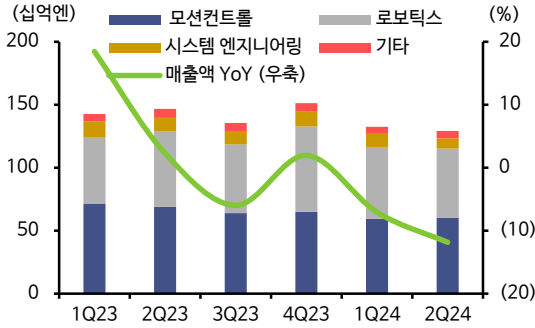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1HFY24 지역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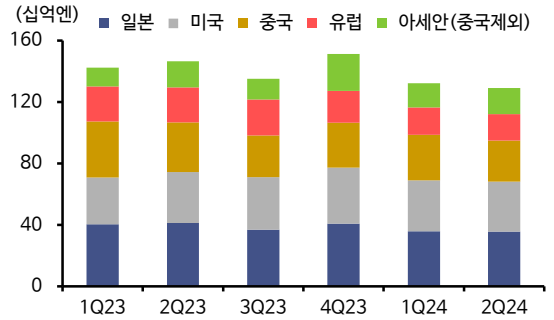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제품별 분기 매출 및 매출 증가율 추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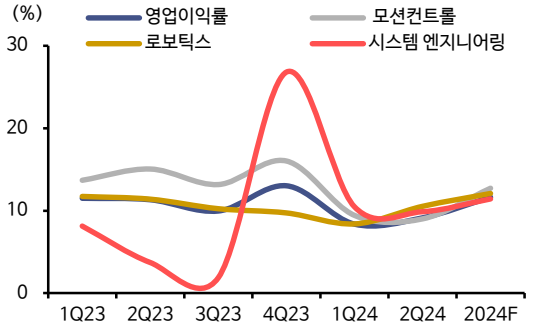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지역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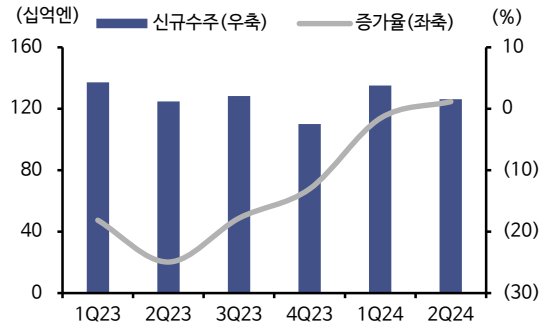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제품별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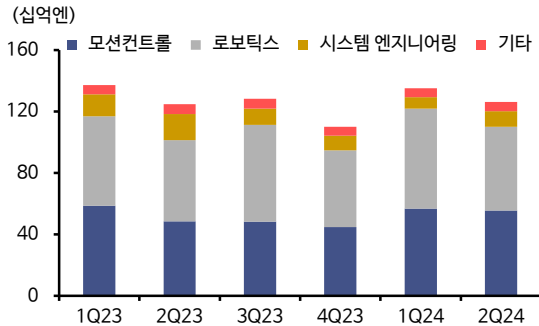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분기별 신규 수주 및 수주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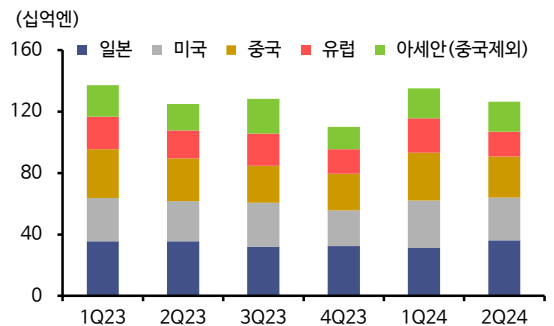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제품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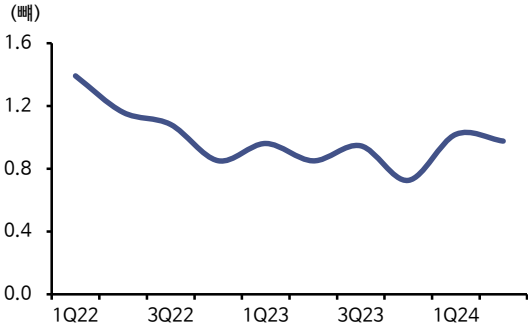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지역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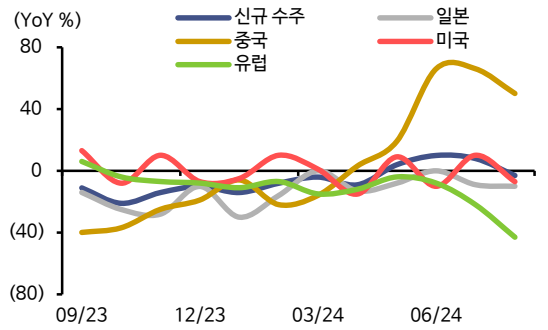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여전히 낮은 Book-to-Bill(신규수주/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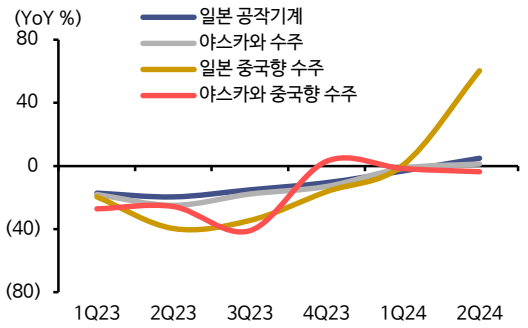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일본 공작기계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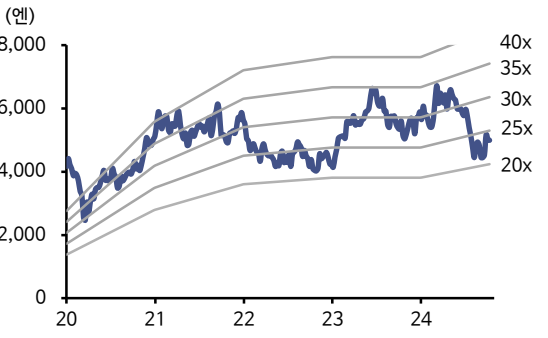
자료: JMTBA, 신한투자증권

일본 공작기계 VS 야스카와 전기 수주 추이



자료: 회사 자료, JMTBA,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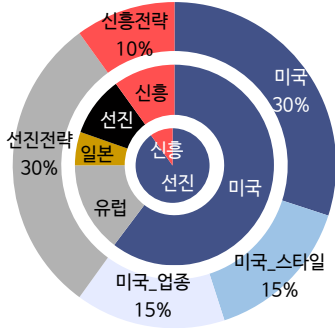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원석).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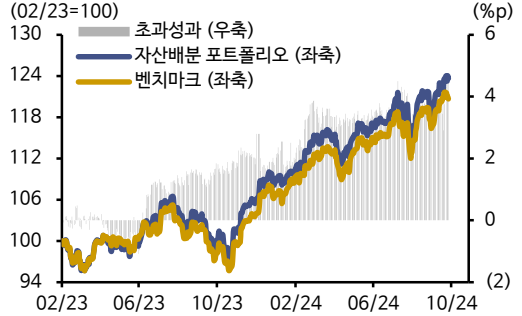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①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 글로벌 자산배분 주식 부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주식	64.0	60.0	4.0		3.5	2.8	14.6
선진	54.0	54.0	0.0				
미국	39.5	36.0	3.5				
S&P500 ETF	21.5	18.0	3.5	SPY.US	2.9	3.0	37.4
스타일배분	3.0	0.0	3.0				
성장 ETF	3.0	0.0	3.0	VUG.US	4.1	(0.9)	55.2
업종 배분	15.0	0.0	15.0				
핀테크 ETF	2.0	0.0	2.0	FINX.US	2.5	8.1	0.0
반도체 ETF	4.0	0.0	4.0	SOXX.US	6.8	(10.3)	59.2
인프라 ETF	3.0	0.0	3.0	PAVE.US	7.2	10.2	10.0
은행 ETF	3.0	0.0	3.0	KBE.US	(3.3)	11.4	(5.2)
클라우드 ETF	3.0	0.0	3.0	SKYY.US	6.0	4.1	(1.7)
기타 선진	14.5	18.0	(3.5)				
유럽 ETF	10.9	10.9	0.0	FEZ.US	0.3	1.0	19.3
일본 ETF	3.6	3.6	0.0	DXJ.US	1.6	(6.9)	28.1
기타 선진	0.0	3.5	(3.5)				
신흥	10.0	6.0	4.0				
중국	7.7	1.9	5.8				
항생테크 ETF	3.0	0.0	3.0	3033.HK	42.9	37.6	14.7
CSI 300 ETF	2.7	1.9	0.8	2823.HK	31.0	29.4	28.4
홍콩 H ETF	2.0	0.0	2.0	2828.HK	26.3	22.9	9.3
기타 신흥국	2.3	4.1	(1.8)				
한국 ETF	1.2	0.7	0.5	EWY.US	(0.9)	(6.2)	(1.1)
인도 ETF	1.1	1.1	0.0	INDA.US	0.1	1.6	29.6
신흥국 ETF	0.0	2.3	(2.3)	EEM.US	9.5	7.1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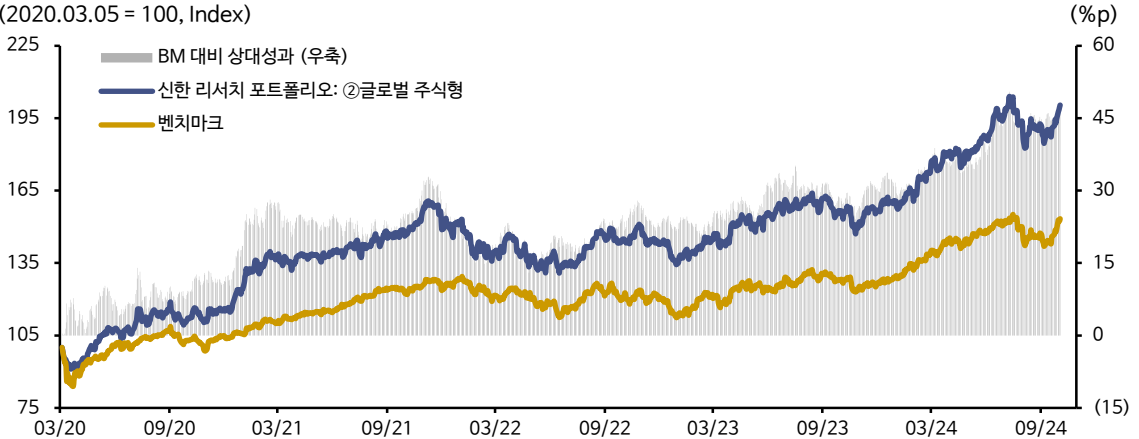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채권	28.0	30.0	(2.0)		0.3	1.9	1.8
미국 국채	7.8	6.0	1.8				
국채 단기	4.2	0.9	3.3	SCHO.US	0.3	1.6	1.0
국채 중기	2.5	3.6	(1.1)	VGIT.US	0.2	3.3	1.6
국채 장기	0.6	1.1	(0.5)	VGLT.US	(0.7)	5.4	(6.1)
물가채	0.6	0.5	0.1	TIP.US	1.0	3.4	1.7
미국 크레딧	6.2	6.0	0.2				
MBS	2.8	3.0	(0.2)	MBB.US	(0.1)	3.9	0.3
IG 단기	1.7	0.2	1.4	VCSH.US	0.4	2.3	4.0
IG 중기	0.8	1.4	(0.6)	VCIT.US	0.8	4.0	4.3
IG 장기	0.3	0.7	(0.4)	VCLT.US	1.2	5.5	0.5
HY 단기	0.1	0.2	(0.0)	SJNK.US	1.1	2.6	2.4
HY 중기	0.4	0.5	(0.0)	HYG.US	1.3	3.2	4.8
비미국	14.0	18.0	(4.0)				
전체	7.0	7.5	(0.5)	IAGG.US	0.8	3.5	6.7
선진	5.6	6.0	(0.4)	BNDX.US	0.8	3.1	3.5
신흥	1.4	4.5	(3.1)	EMLC.US	1.6	4.5	0.0
대체	7.5	10.0	(2.0)		1.3	2.7	4.4
상품	1.8	4.0	(2.2)				
금	0.7	0.5	0.2	GLD.US	6.6	12.6	40.8
원유	0.3	1.5	(1.2)	USO.US	6.5	(6.8)	10.3
산업금속	0.8	1.5	(0.7)	DBB.US	9.3	2.3	1.2
농산물	0.0	0.5	(0.5)	DBA.US	3.5	6.3	27.0
리츠	2.7	2.5	0.2				
물류/산업	1.0	1.0	0.0	INDS.US	(0.4)	10.4	1.1
미국 중소형	0.6	0.5	0.1	KBWY.US	2.3	17.1	(4.3)
한국 리츠	1.0	1.0	0.0	329200.KS	(5.1)	(1.9)	(2.0)
인프라	3.5	3.5	0.0				
미드스트림	2.3	2.3	0.0	AML.P.US	1.7	(2.3)	16.9
디지털	1.2	1.2	0.0	SRVR.US	5.5	15.8	1.4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②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 성과

(2020.03.05 = 100, Index)



종목/테마		1D	편입 후	종목/테마		1D	편입 후
미국/선진				중국/신흥			
엔비디아	NVDA.US	1.7	437.9	베이핑화창	002371.SZ	0.0	26.3
브로드컴	AVGO.US	2.8	122.2	중신증권	600030.SS	0.0	30.6
일라이 릴리	LLY.US	0.2	44.5	알리바바	BABA.US	1.5	9.0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0.1)	7.9				
팔란티어	PLTR.US	2.0	93.1				
코스트코	COST.US	0.8	4.7				
테슬라	TSLA.US	3.9	25.3				
암젠	AMGN.US	0.7	1.9				
록히드마틴	LMT.US	(0.1)	26.2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US	(1.4)	5.7				
TSMC	TSM.US	0.9	13.7				
나이키	NKE.US	0.2	(0.8)				
알트리아그룹	MO.US	0.2	(6.3)				
오라클	ORCL.US	2.4	3.1				
쿠팡	CPNG.US	1.9	(1.6)				
온홀딩스	ONON.US	4.1	2.3				
로켓 랩 USA	RKLB.US	5.9	29.3				
아머 스포츠	AS.US	3.7	8.2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TT.US	0.4	0.5				
				ETF			
				S&P500	SPY.US	0.9	27.3
				은행 ETF	KBE.US	1.8	(3.4)
				풍력 ETF	FAN.US	0.6	(2.7)
				차이나 인터넷 ETF	KWEB.US	3.3	15.1
				전력망 ETF	GIRD.US	0.7	(1.8)
				단기채 (USD)	SHV.US	0.0	(0.3)
				단기채 (CNY)	511360.SS	0.0	8.9

편입: 없음
 편출: 없음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월간 Top Picks

	브로드컴 (AVGO.US) #AI 서버 수혜주 #고속 네트워크 수요 증가 #고배당주 편입일 2023-05-30 · AI 어플리케이션 확산 속 800G 네트워크 솔루션(스위치, 가속기 판매) 업그레이드 수요 지속될 전망 누적수익률 122.2% · AI 추론 수요 확대에 필요한 커스텀 IC(ASIC) 설계 수요 증가, 구글/메타 등 주요 고객사 확보 긍정적
	TSMC (TSM.US) #파운드리 대장주 #독보적 3나노 이하 미세공정 점유율 #AI 고객사 편입일 2024-08-07 · 전방산업 전반의 공급 부족 심화 구간부터 부동의 1위 점유율 수성, 압도적인 점유율은 뛰어난 기술력을 대변 누적수익률 13.7% ·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 등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탑티어 팹리스들을 상대로도 높은 가격 결정력 보유
	오라클 (ORCL.US) #데이터센터 #데이터베이스 #OCI플랫폼 #Capex 상황 편입일 2024-09-23 · 전 세계 162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운영/건설 중이며 향후 1~2천개까지 데이터센터 확장 예상 누적수익률 3.1% · FY24년 대비 FY25년에 CapEx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140~150억달러)
	온홀딩스 (ONON.US) #온리닝화 #테니스 #빠른 해외 확장 #채널 조정 마무리 단계 편입일 2024-09-23 · 점유율 확대와 함께 빠른 해외시장 확대. '26년까지 매출 두 배, 조정 EBITDA 마진 18% 이상이 목표 누적수익률 2.3% · 4Q23~1Q24의 매출 성장을 둔화는 도매 사업 재편에 따른 것으로,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
	스타벅스 (SUBX.US) #행동주의 투자자의 개입 #빠른 해외 매장 확대 #던어라운드 전략 편입일 2024-09-02 · 행동주의 투자회사 엘리엇 펀드는 최대 20억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경영 개선안 제출 누적수익률 2.6% · 또한 래क्स먼 CEO가 퇴임하게 되며, 9월 9일부터 차플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 CEO로 취임 예정
	일라이 릴리 (LLY.US) #밸류에이션 우려 완화 #매수 재개 고려 시점 편입일 2024-01-04 · 비만약 원활한 공급,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본 승인 등 내러티브가 펀더멘탈 성장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상황 누적수익률 44.5% · 지속적인 실적 전망 상황 조정으로 안정적 주가 흐름에도 밸류에이션 우려 완화, 매수 재개를 고려할 시점
	레나 (LEN.US) #모기지 금리 하락 지속 #주택구매수요 증가 #마진 개선 편입일 2024-10-02 · 미국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 증가 누적수익률 (2.4%) · 주택 구매 수요 확대로 주택 착공 및 허가 지표 개선이 기대되며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마진 개선
	베이팡화창 (002371.SZ) #반도체 국산화 #정부 반도체 3기 펀드 수혜 #계속되는 실적 서프 편입일 2024-03-14 · 중국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과 수주 잔고 달성하며 탄탄한 펀더멘탈 입증 누적수익률 26.3% ·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 3기 조성 + 전방 고객사 CapEx 확장에 따른 수혜 지속
	전력망 ETF (GIRD.US)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전력 인프라 호황 사이클 지속 편입일 2024-09-24 ·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산업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며 전력망, 전력 축적, 기기, 저장 등을 포함 누적수익률 (1.8%) · 2분기 미국 전력 인프라 및 유틸리티 사업자들 호실적 기록, 수주잔고도 사상 최대
	중국 소비재 ETF (9806.HK) #정부 부양책 최대 수혜 #부동산 회복 #소비재 던어라운드 편입일 2024-10-02 · 중국 대표 소비재 기업으로 구성된 ETF.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 달러로 거래(홍콩달러 거래는 2806.HK) 누적수익률 2.4% · 정부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부양책 패키지 발표, 주로 내수 소비 확대 겨냥, 소비재 업종 최대 수혜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식과 ETF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성과와 상이하거나, 투자이익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의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MSCI AC World Index(70%) + Bloomberg Barclays World Bond Index(30%)입니다.
- 상기 중목 정보는 FinGuide, Bloomberg 및 WIND(중국, 홍콩)의 정보와 컨센서스 및 각 ETF 운용사 제공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 상기(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직전거래일 기준 증가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의 주가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수익률은 편입일의 증가 대비 직전거래일 증가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 회사(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종자산으로 ESG 발행된 상품입니다. 기타의 중목은 회사(원)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 정책에 따라 주기별 변경가능합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③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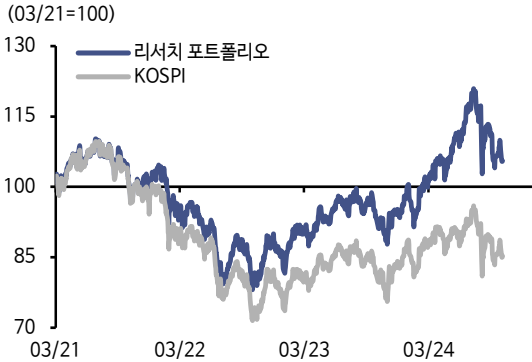
10월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전주 차이
				비중	제안 비중	차이 (B-A)		
				(A)	(B)	(B-A)		
에너지				1.9	1.9	0.0		
	에너지	A010950	S-Oil	1.9	1.9	0.0	1.9	신규
소재				7.9	8.4	0.5		
	화학	A298020	효성티앤씨	4.4	4.6	0.2	1.0	(0.0)
		A009830	한화솔루션				0.9	(0.0)
		A051910	LG화학				1.2	0.0
		A011780	금호석유				1.5	0.0
	비철,목재등	A010130	고려아연	1.4	1.7	0.3	0.9	(0.2)
		A006260	LS				0.2	0.1
		A103140	풍산				0.5	0.3
	철강	A005490	POSCO홀딩스	2.1	2.1	0.1	1.7	(0.1)
		A004020	현대제철				0.4	(0.0)
산업재				15.3	15.3	0.0		
	건설,건축관련	A009240	한샘	1.5	1.3	(0.2)	1.3	(0.0)
	기계	A112610	씨에스윈드	3.1	3.2	0.2	3.2	0.2
	조선	A329180	HD현대중공업	3.0	3.1	0.1	1.8	(0.2)
		A082740	한화엔진				1.3	신규
	상사,자본재	A047810	한국항공우주	5.3	5.2	(0.1)	1.4	0.1
		A028260	삼성물산				1.9	0.1
		A034730	SK				1.1	0.1
		A001040	CJ				0.9	0.0
	운송	A003490	대한항공	2.5	2.5	(0.0)	2.5	(0.2)
경기관련소비재				10.9	10.3	(0.6)		
	자동차	A005380	현대차	6.8	6.6	(0.2)	2.8	(2.0)
		A000270	기아				2.2	0.7
		A204320	HL만도				1.7	1.2
	화장품,의류,원구	A383220	F&F	2.4	2.5	0.1	0.8	신규
		A192820	코스맥스				0.8	신규
		A018250	애경산업				0.8	신규
	호텔,레저서비스	A034230	파라다이스	0.4	0.3	(0.1)	0.3	0.1
	미디어,교육	A253450	스튜디오드래곤	0.7	0.4	(0.2)	0.3	신규
		A352820	하이브				0.1	0.0
	소매(유통)	A021240	코웨이	0.7	0.4	(0.3)	0.4	(0.2)
필수소비재				2.3	2.3	(0.0)		
	필수소비재	A033780	KT&G	2.3	2.3	(0.0)	2.3	(0.1)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전주 차이
				비중	제안 비중	차이 (B-A)		
				(A)	(B)	(B-A)		
의료				8.2	8.5	0.3		
	건강관리	A196170	알테오젠	8.2	8.5	0.3	2.9	0.3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				3.2	0.1
		A068270	셀트리온				2.0	0.0
		A000100	유한양행				0.4	0.0
		A064550	바이오니아				0.0	(0.0)
금융				11.4	11.8	0.4		
	은행	A055550	신한지주	6.5	6.6	0.1	3.0	신규
		A086790	하나금융지주				3.6	0.2
	증권	A016360	삼성증권	2.3	2.6	0.3	1.3	0.0
		A071050	한국금융지주				1.3	0.0
	보험	A000810	삼성화재	2.6	2.6	0.0	1.1	(0.2)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1.5	0.3
IT				39.5	38.8	(0.6)		
	소프트웨어	A259960	크래프톤	5.0	4.9	(0.1)	0.6	0.0
		A251270	넷마블				1.5	(0.0)
		A067160	SOOP				1.7	0.0
		A263750	필터비스				1.0	0.0
		A012510	더존비즈온				0.0	(0.0)
	IT하드웨어	A009150	삼성전기	1.3	1.0	(0.3)	0.1	(0.0)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0.8	(0.1)
		A011070	LG이노텍				0.1	(0.0)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25.3	25.1	(0.2)	18.0	(0.6)
		A000660	SK하이닉스				7.1	(0.2)
		A131290	티에스이				0.1	신규
	IT가전	A066570	LG전자	7.6	7.8	0.2	1.6	0.5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4.8	(0.4)
		A006400	삼성SDI				1.4	(0.0)
	디스플레이	A034220	LG디스플레이	0.3	0.0	(0.3)	0.0	(0.1)
통신서비스				1.3	1.5	0.2		
	통신서비스	A030200	KT	1.3	1.5	0.2	1.5	(0.0)
유틸리티				1.3	1.2	(0.1)		
	유틸리티	A015760	한국전력	1.3	1.2	(0.1)	0.2	(0.1)
		A036460	한국가스공사				0.4	(0.1)
		A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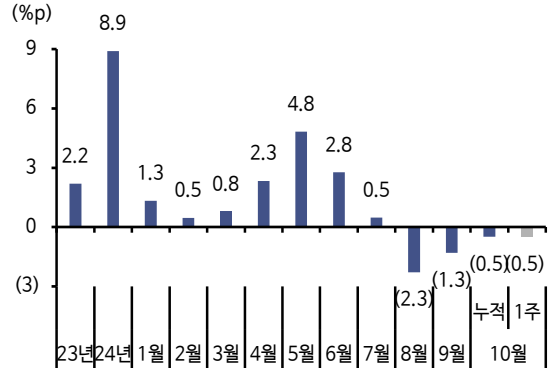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 주: 업종 분류는 FnGuide W126 기준, 10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

KOSPI와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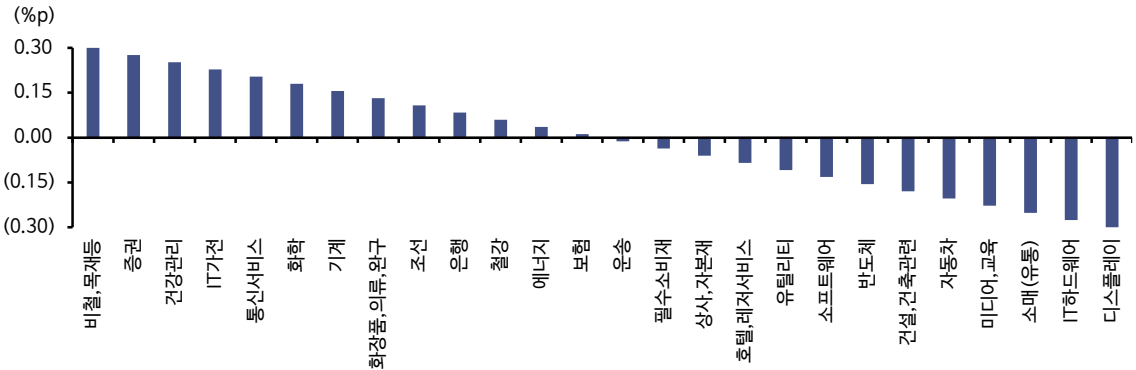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상대수익률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KOSPI 대비 업종 비중 [비철, 증권, 헬스케어 VS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소매]



자료: 신한투자증권

[비철/목재]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비철금속 가격 반등세

- 풍산: 펀더멘털과 무관했던 추가하락을 비중확대 기회로 사용할 필요 있음. 연말 주주 가치 제고 정책 발표 기대도 긍정적

[증권] 금융업종 내 유일한 금리 인하 수혜. 거래대금 회복은 아직 더디나, 운용손익 개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기대

- 삼성증권: 타 금융 계열사와 유사하게 중장기 주주환원율 50% 수준의 자본정책 발표 예상, 배당수익률 7%대 전망

[헬스케어] NBI 대비 KS200 헬스케어 지수가 크게 우상향 하고 있는 상황. KQ150 헬스케어 지수 상승 트리거 필요

- 알테오젠: 키트루다SC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 허가 신청 또한 4Q24-1Q25 내 진행 예정

추천 종목

중소형주

뷰노 (338220)		KDQ
주가 (원)	34,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Q24 흑자전환 가시화, 딥카스 도입병원 증가로 매출액 상승 ◆ 4분기 딥카스 FDA 승인 가능, 연내 승인시 내년 미국 진출 기대 ◆ 연내 삼성병원 이외 BIG4 병원 도입 가능, 병상수가 많은 대학병원 진출로 매출 상승 기대
추천일	24년 9월 24일	
수익률	-2.7%	
상대수익	-4.5%p	
한국콜마 (161890)		KDQ
주가 (원)	7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제품 수출 수요 전 세계적 확장, 생산성 개선에 따른 생산가능량 증가 ◆ 미국법인 고객사 리뉴얼 제품 생산으로 가동률 개선세, R&D 비용 제외시 월간 BEP 도달 ◆ 매출 볼륨과 이익률 모두 사상 최대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의 호황
추천일	24년 9월 9일	
수익률	0.1%	
상대수익	-0.9%p	
티에스이 (131290)		KDQ
주가 (원)	4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브카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소켓, OLED 테스트 시스템 실적 개선 기대 ◆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고객사, 제품 다변화 ◆ 밸류에이션 저점으로 재평가 기대감 고조
추천일	24년 8월 27일	
수익률	3.9%	
상대수익	3.6%p	
JYP Ent. (035900)		KDQ
주가 (원)	5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Q 실적 부진은 활동 부재 및 JYP360 매출 인식 지연 영향, 하반기 실적 개선 예정 ◆ 엔화 강세 수혜 분명, 신규IP 런칭, 글로벌 레이블 확장 등 하반기 모멘텀 충분 ◆ 현재 멀티플 고점대비 45% 하향된 수준으로 매력적, 엔터 내 올해 주가하락폭 가장 큼
추천일	24년 8월 26일	
수익률	-1.9%	
상대수익	-1.4%p	
드림텍 (192650)		KDQ
주가 (원)	8,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의료기기에 이어 반도체까지 사업 다변화 진행 ◆ 드림텍 종속회사 드림텍 인디아가 그레이터 노이다에 제1공장 건설, 지난달 준공식 개최 ◆ 차세대 시장으로 인도 진출 본격화, 원격의료 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확대
추천일	24년 8월 21일	
수익률	-8.9%	
상대수익	-4.2%p	
모나용평 (070960)		KSP
주가 (원)	4,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엔드 리조트 '루송채' 순차적 분양에 따른 실적 강세 사이클 도래 ◆ 대규모 토지 보유에 따른 개발 잠재력 보유 ◆ 선분양에 따른 안정적 재무구조와 제한적 리스크
추천일	24년 8월 14일	
수익률	14.7%	
상대수익	16.7%p	

삼목에스폼 (018310)		KDQ
주가 (원)	28,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폼 등의 건설 토목용 가설재 사업 국내 1위 사업자 국내외 자건건설경기의 활황세 및 가꾸집 시장 성장 유지 2024년 매출 반등의 원년으로 사업 전망도 긍정적
추천일	24년 8월 1일	
수익률	36.4%	
상대수익	40.7%p	
비나텍 (126340)		KDQ
주가 (원)	37,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본업 회복으로 전사 기준 실적 개선 전망, 매출액 전년대비 25% 성장 예상 연료전지 소재, 부품 사업부 창사 이후 최대 매출액 달성 기대 리튬 이온 커패시터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사업 및 대형 고객사와 수소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추천일	24년 7월 29일	
수익률	-8.1%	
상대수익	-4.5%p	
토비스 (051360)		KDQ
주가 (원)	18,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브드 모니터, 버튼택 등 신제품 출시 활발 현재 카지노용 모니터 M/S 1위, 4개 주요 고객사와 모두 거래 중 가파른 전장용 매출액 상승,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고객사 4곳 확보 완료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20.5%	
상대수익	-9.8%p	
태광 (023160)		KDQ
주가 (원)	13,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수주 바닥 통과, 2Q24부터 신규수주 증가세로 전환 미국 LNG 및 중동 정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확대 동해 석유, 가스전 시추는 당장의 실적 기여가 없겠지만 기대감에 따른 긍정적 시각 유지
추천일	24년 6월 7일	
수익률	7.0%	
상대수익	16.6%p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와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 국내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KOSPI(100%)입니다.
- ◆ 중소형주 추천 종목은 추천일 직전거래일 증가 기준 시가총액 3조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 ◆ 주가는 직전거래일 증가 기준이며, 일부 종목 정보는 FnGuide를 참고하였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신한지주)와 계열회사 관계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NAVER,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POSCO홀딩스,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카카오, 카카오뱅크)를 기초자산으로 ELWG가 발행된 상태이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LG디스플레이, LG전자, NAVER, SK,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국전력,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고려이연, SK, 현대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영원무역)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편출]

- ◆ 없음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7		10/8		10/9		10/10		10/11	
중 유	휴장(중국) 9월 외환보유액 8월 소매판매	미	9월 NFB 소기업 낙관 3년 만기 국채 입찰 WGBI 편입 발표	미	휴장(한국) FOMC 회의록 1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일 미	휴젤/메디톡스 ITC 소송 최종심결 9월 PPI 9월 CPI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3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중 미	금융통화위원회 10월 1~10일 수출입동향 9월 CPI, PPI(10/13) 9월 PPI 10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
10/14		10/15		10/16		10/17		10/18	
중	휴장(일본) 9월 수출입동향	한 중 유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 MLF 금리 결정 10월 ZEW 서베이 예상 8월 산업생산	일	8월 핵심기계수주	일 유 미	9월 수출입동향 9월 CPI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9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10/18)	일 중 미	9월 CPI 9월 신규주택가격, 기존 주택가격 3Q24 GDP 9월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옵션만기일
10/21		10/22		10/23		10/24		10/25	
한 중 미	10월 1~20일 수출입동향 LPR 금리 결정 9월 경기선행지수			미	9월 기준주택매매 연준 베이지북 공개 2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일 유 미	3Q24 GDP 10월 PMI 10월 PMI 10월 PMI 9월 신규주택매매	일 중 미	10월 도쿄 CPI 9월 공업이익, 산업생산 (10/27) 9월 내구재 주문 10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10월 미시간 1년 인플레이
10/28		10/29		10/30		10/31		11/1	
미	10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미	8월 FHFA 주택가격지수 8월 CS 주택가격지수 9월 구인이직보고서 10월 CB 소비자기대	유 미	3Q24 GDP 10월 ADP취업자 변동 3Q24 GDP	일 중 유 미	9월 소매판매 금융정책회의 10월 NBS PMI 10월 CPI 10월 챌린저 Job Cut 9월 PCE 10월 시카고 PMI	한 일 중 미	10월 수출입동향 10월 제조업 PMI 10월 Caixin 제조업 PMI 10월 고용동향보고서 10월 제조업 PMI 10월 ISM 제조업
11/4		11/5		11/6		11/7		11/8	
한 유	휴장(일본) 10월 외환보유액 10월 제조업 PMI	한 중 미	10월 외환보유액 10월 CPI 10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9월 내구재 주문 10월 ISM 서비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일 유 미	10월 종합, 서비스 PMI 10월 종합, 서비스 PMI 3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유	MSCI 리부 발표 9월 소매판매	중 미	10월 CPI, PPI(11/9) FOMC 9월 소비자신용지수 11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11월 미시간 1년 인플레이

자료: Marketpoint, 언론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예): 예비치, (수): 수정치, (화): 확정치

신한아이 화면번호 안내



[주식/시황 정보]

0100	1054	1058	1059
주식종합	지수추이	주요 거래지표	증시자금 추이
1110	1503	1863	3101
현재가종합	업종별시세	주가등락률 상하위	시황티커
4050			
파워차트			

[선물]

2000	2450	4101	
지수선물 현재가	상품선물옵션 현재가	KOSPI 선물/옵션 분봉	

[수급 정보]

1200(당일)/1203(일자별)	1205	1306	1314
투자주체별 순매수 금액	업종별 투자주체	실시간 외국계 매매종목	외국인/기관 (장중) 매매현황 추정
1407	1457	1670	1881
투자주체별 매도/매수 상위 종목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종목별/일별 대차거래 내역	공매도 일간/누적 상위종목
4540			
장중 투자주체별 매매 추이 (Light)			

[환율/금리/원자재]

3204	3213	3214	
환율 동향	원자재 동향	국내외 금리	

[국내 포트폴리오/리서치 정보]

3150	3154		
신한아이 리서치	리서치 종목 시세		

🔥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본자료는 2024년 10월 7일 공표한 자료와 2024년 10월 8일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종목	기준	섹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10월 5일 기준)

매수 (매수)	93.92%	Trading BUY (중립)	4.18%	중립 (중립)	1.90%	축소 (매도)	0.00%
---------	--------	------------------	-------	---------	-------	---------	-------